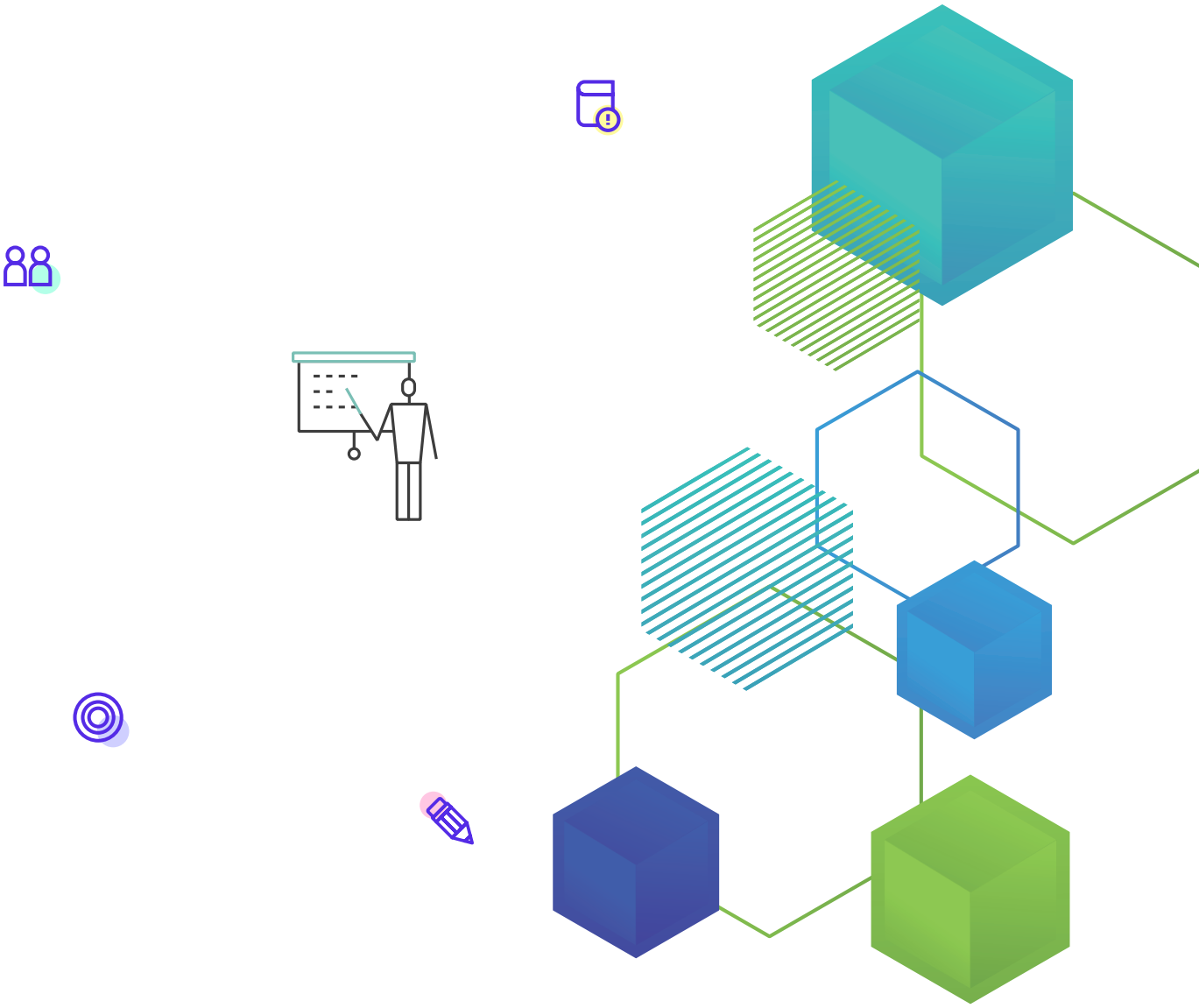
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한 부산형 우수모델 발굴사업

부산형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성과연구보고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Contents

부산형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성과연구보고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 3
2. 사업 목표 ····· 4
3. 사업 추진 개요 ····· 5
4. 사업 추진 체계 ····· 6
5. 세부 추진 과제 ····· 7

Ⅱ 사업 내용

1. 사업 운영 현황 ····· 13
2. 세부 사업 내용 ····· 15

Ⅲ 성과 평가

1. 성과 평가 개요 ····· 31
2. 사업 내용 평가 ····· 33
3. 참여자 변화도 ····· 35
4. 참여자 학교생활의 질적 변화도 ····· 52

Ⅳ 사업의 의의 및 제언

1. 사업의 의의 ····· 77
2. 제언 ····· 80

I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2. 사업 목표
3. 사업 추진 개요
4. 사업 추진 체계
5. 세부 추진 과제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 COVID-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증가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또래 학생 간 관계형성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부족해지고 있음. 특히 해당 부분은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21년도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수조사(1차) 결과, 학교폭력은 COVID-19로 인한 학교의 전면 개방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증가추세[1]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2]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회복적 접근의 필요성 대두

· 2021년 체육계와 연예계의 학교폭력 사안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즉시적이고 피해자 회복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최근 학교 현장은 응보적 관점인 훈계나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 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으로 전환중인 추세.

○ 지자체-교육청-학교-전문기관 연계 모델 개발의 필요성

· 시와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성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민과 관이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교사를 변화의 주체로 보고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여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교사의 역할을 보조수행하고 회복적 정의의 인식확산을 주도적으로 수행 할 전문기관의 필요성 대두.

---

1) 전국 : `20년도 0.9% → `21년 1.1% (증 0.2%), 부산 : `20년도 0.8% → `21년 0.9% (증 0.1%)
2)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20년도 초 : 1.5 중 : 0.4 고 : 0.2 → `21년도 초 : 2.2 중 : 0.4 고 : 0.1

2. 사업 목표

폭력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조성

목 표	추진과제
회복적 학교운영 체계 구축	• 학교폭력전담기구 회복적 사안조사 실시운영 • 회복적 TF팀 구성·운영 (교사, 관리자, 학부모) • 학교폭력 시범사업 프로그램 사전교육 실시 •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교과과정 포함
민·관 공동 회복적 네트워크 구축	• 민·관 공동 자문위원회 운영 • 모니터링&사례회의, 통합사례관리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 회복적 학급 운영 • 관계형성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 또래조정자 양성 및 운영 체계 구축

효과성 검증을 통한 우수모델 발굴

3. 사업 추진 개요

■ 사업명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10개월)**

■ 사업대상

○ **주양초등학교(부산광역시 사상구)**

○ **오륙도초등학교(부산광역시 남구)**

■ 운영방침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동주관 사업**

○ **전문기관(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연계 학교폭력 대처 프로그램 적용**

○ **운영학교에 교당 1,600만원 배정**

· 교부금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전문기관(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에 지급

· 전문기관(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에서 교부금 집행 및 정산보고 실시

○ **공모를 통한 운영학교 선정: 초 2교**

○ **공모일정**

연 번	내 용	일자 및 기간	비 고
1	공모 알림	2022. 1. 24.(월)	공문발송
2	공모 신청	2022. 1. 24.(월) ~ 2. 9.(수)	문서24 공문
3	선정 결과 알림	2022. 2. 14.(월)	문서24 공문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본 센터는 학교폭력 문제를 관계회복 중심으로 해결하고,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다.

4. 사업 추진 체계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는 시범사업 학교 2개교를 지원하는 부산시, 교육청,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다. 유관기관에는 경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정보문화센터, 학교학부모회 총연합회, 성폭력상담소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학계 전문가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들 유관기관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프로그램 및 사업 연계와 자문, 정보제공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

5. 세부 추진 과제

■ 세부과제 1 : 회복적 학교운영 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목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구조 및 학급운영과 교육과정과 연동하여 회복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기능과 역할	1.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방법 전환 - 기존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방식을 회복적으로 전환하여 운영 -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조정모임(개인·집단) 연계 체계 구축
	2. 회복적 TF팀 구성 - 학년별 교사 대표, 학교폭력 담당교사, 전문기관 실무자 - TF팀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및 교육 수강 - 발대식, 캠페인 등 홍보 및 회복적 프로세스 단계에 자문 -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
	3. 시범사업 프로그램 사전 교육 실시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 안내 - 회복적 정의 및 회복적 생활교육 이론과정 실시 - 회복적 생활교육 실제 사례 공유 및 신뢰서클 실제 과정 실시
	4. 교과과정 연계 운영 - 학년별 교과과정 내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내용 파악과 계획서 작성 - 회복적 교과과정에 교사 워크숍(1년에 2번 이상) 포함 - 사례 발표회를 통한 성과 공유

■ 세부과제 2 : 민 · 관 공동 회복적 네트워크 구축

구 분	내 용
목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례 모니터링 및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점을 보완한다.
기능과 역할	1. 민 · 관 공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계, 청소년 유관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 시범사업 중간 평가 및 개선점 보완
	2. 모니터링&사례회의, 통합사례관리 - 학교폭력 사안 사례회의 및 개별 컨설팅 실시 - 사안처리 종료 후 모니터링 및 통합 서비스 지원

■ 세부과제 3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구 분	내 용
목표	회복적 학급운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래 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능과 역할	1. 회복적 학급운영 - 상호신뢰와 존중을 통한 교사와 학생 상호 이해 - 경청과 수용, 자발적 동기와 책임을 통한 배움의 방식 전환 - 신뢰서클, 비폭력 대화, 존중의 약속, 몸과 마음 열기, 마음 신호등
	2. 관계형성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초 관계형성을 위한 우정Plus+프로그램 운영 -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기본·심화) 실시
	3. 또래조정자 양성 및 운영체계 구축 - 학생 중심의 네트워크 - 학생 중심의 관계회복 조정기능 - 사례 발표회를 통한 성과 공유

MEMO

Ⅱ

사업 내용

1. 사업 운영 현황
2. 세부 사업 내용

Ⅱ 사업 내용

1. 사업 운영 현황

■ 참여학교 개요

○ **주양초등학교**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6

· 학급 수 : 19학급

○ **오륙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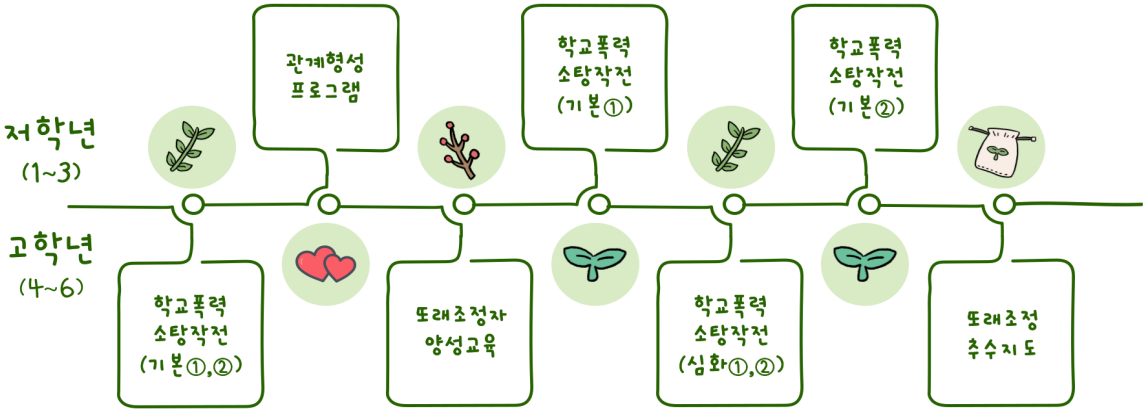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57

· 학급 수 : 25학급

■ 사업 총괄표

대 상	시기	사업명	사업내용
교사	2월, 5월, 11월	함께 성장하는 교사교육	회복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학생과의 갈등상황 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법의 이해
학생 (저학년)	3~4월, 9~10월	신뢰관계형성프로그램 '우정Plus+프로그램'	학기 초 또래 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신뢰감 형성놀이 및 협동 중심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신뢰관계 형성 도모
	3~4월, 9~10월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소탕작전 (기본)'	회복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 책임과 관계 중심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도모
학생 (고학년)	3~4월, 9~10월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소탕작전 (기본・심화)'	회복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 책임과 관계 중심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도모
	3월~11월	또래조정사업	훈련받은 청소년이 조정자가 되어 또래들 간 사소한 다툼 발생 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관계회복과 안전한 공동체 형성
학부모	3월, 11월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	회복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녀와의 갈등상황 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법의 이해

■ 프로그램 운영체계도



■ 사업운영 실적

○ 교사

- 회복적 정의 인식 확대 및 문화형성을 위한「교사교육」운영(10회, 212명)

○ 학부모

- 회복적 정의 인식 확대 및 문화형성을 위한「학부모교육」운영(2회, 98명)

○ 학생

- 저학년 대상 관계형성프로그램「우정Plus+프로그램」운영(21학급, 844명)
- 회복적 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폭력소탕작전(기본)」운영(67학급, 1,930명)
- 회복적 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폭력소탕작전(심화)」운영(23학급, 1,098명)
- 학급 갈등 해결을 위한「관계회복조정모임(집단)」운영(6학급, 266명)
- 4~6 고학년 대상「또래조정자 양성 프로그램」운영
  - 또래조정자 양성교육(23학급, 3,480명)
  - 또래조정자 추수지도 및 조정자 활동(23학급, 1,581명)

2. 세부 사업 내용

■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소탕작전(기본 · 심화)"

○ 학교폭력 소탕작전(기본)

· 대상 : 1~6학년 전 학급
· 시수 : 총 2회 / 4시간
· 기간 : 3~4월, 9~10월
· 내용 :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의 이해, 회복적 의사소통 방법 훈련 등

대 상	회기	주 제	세 부 내 용	비 고
저학년 (1~3학년)	1	학교폭력의 이해 & 방어자 역할	- 학교폭력의 정의, 종류, 관련자들 - 방어자와 3의 법칙 - 갈등의 이해, 갈등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응보vs회복)	
	2	다양성 존중과 배려 & 회복적 의사소통 (나-전달법)	- 생각의 차이(다양성 이해) 활동 - 존중&배려란? - 놀이로 배우는 경청 - '나'를 주어로 말해요!	
고학년 (4~6학년)	1	회복적정의 이해 & 관계중심 공동체 만들기	- 정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응보vs회복) - 응보적 관점의 한계와 회복적 관점의 필요성 - 자발적 책임이란? - 관계회복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해하기	
	2	갈등이해 & 회복적 의사소통 (비폭력대화)	- 공동체 속 나의 갈등상황 파악하기 - 부정적 감정과 신체적 반응 알아보기 - 회복적 의사소통 훈련 : 비폭력 대화란? - 비폭력 대화로 갈등상황 풀어내기	

읽을거리

회복적 정의란?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응보적 관점의 정의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자발적 책임과 관계회복을 목표로 공동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일으킨 사람에게 피해자의 회복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벌이나 비난을 넘어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갖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영향을 직시하도록 돕고, 그 피해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게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회복'의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이해합니다.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잘못을 한 사람의 자발적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갈등 당사자들의 회복은 당사자들이 연결되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역할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회복을 목표로 삼고 공동체의 역할이 회복되려면 공동체 구성원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의 과정에서 필수요소입니다.

(출처: 한국평화교육훈련원)

○ 학교폭력 소탕작전(심화)

· 대상 : 4, 5, 6학년 전 학급
· 시수 : 총 2회 / 4시간
· 기간 : 9~10월
· 내용 : 서클의 이해, 신뢰서클·문제해결서클의 이해와 실제, 서클 질문구성하기 등

회 기	주제	세부내용	비 고
1	서클의 이해 & 신뢰서클 실습	- 안전하고 튼튼한 관계망 구축의 필요성 - 서클의 이해 - 신뢰서클의 이해 - 해보면서 배우는 신뢰서클 - 신뢰서클 질문 구성법	
2	문제해결서클의 이해와 실제	- 서클 경험 누적의 법칙 - 문제해결서클의 3step - 문제해결서클 질문 구성법 - 해보면서 배우는 문제해결서클 - 서클의 다양한 활용법	

학교폭력 소탕작전(기본) - 저학년 '놀이로 배우는 경청'/ 고학년 '갈등상황 이해하기'

학교폭력 소탕작전(심화) - 신뢰서클 실습 / 서클 질문구성하기

■ 신뢰관계형성프로그램 "우정Plus⁺프로그램"

○ 우정Plus⁺프로그램

· 대상 : 1~3학년 전 학급
· 시수 : 총 2회 / 4시간
· 기간 : 3~4월, 9~10월

회 기	주제	세부내용	비 고
1	다양성, 존중, 배려 이해하기	- 여는 놀이: 섬-바다 - 중간 놀이 : 점이 생겼어요! - 나눔의 시간 : 다양성 이해하기 - 중간 놀이 : 망원경 놀이 - 나눔의 시간 : 서로 소통하는 우리 - 심화 놀이 : 소중한 풍선 배달 - 나눔의 시간 :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이해하기	
2	협동활동을 통한 관계향상 기술 익히기	- 여는 놀이 : Go-Stop-Jump! - 중간 놀이 : 거울놀이 - 나눔의 시간 : 애정과 관심은 '관찰'부터 - 심화 놀이 : 풍선 협동놀이 - 나눔의 시간 : 협동의 참 재미	

점이 생겼어요!

거울놀이

망원경 보물찾기

풍선 협동놀이

■ 또래조정사업

○ 사업 진행과정

또래조정자 양성교육 7회기/14시간	⇨	발대식	⇨	추수지도 및 조정활동 2회기/4시간 (조정활동은 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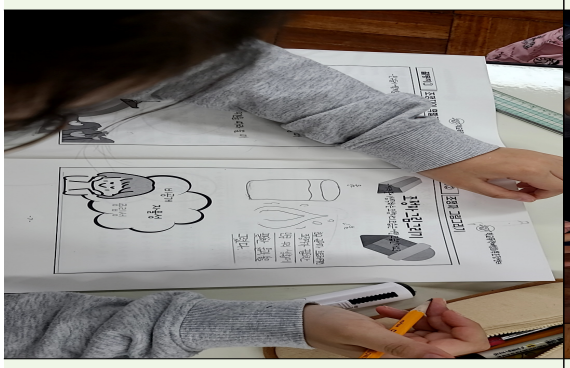
○ 또래조정자 양성교육 / 7회기(14시간)

· 대상 : 4, 5, 6학년 전 학급
· 시수 : 주 1회 / 2시간(총 7회기 / 14시간)
· 기간 : 3월~9월
· 내용 : 협력적 갈등해결과 또래조정, 조정과 조정자의 역할, 조정의 기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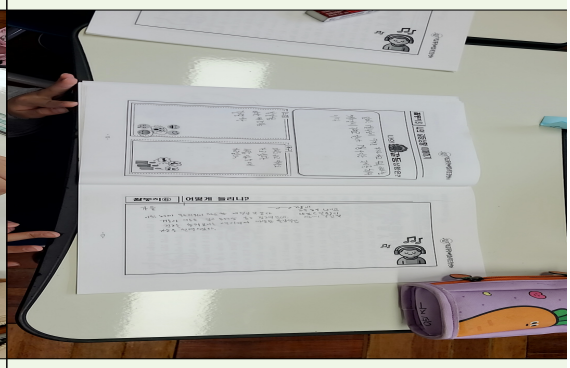
회 기	주 제		세 부 내 용	비 고
1	마음열기와 규칙정하기		- 마음열기 및 기대나누기 -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규칙정하기	
2	또래조정 및 절차의 이해		- 또래조정이란 -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익히기, 조정자 그림 그리기 - 또래조정절차	
3	갈등 및 해결방법의 이해		- 편견다루기 - 나의 갈등상황이해하기 - 갈등 및 회복적 갈등해결방법 - 갈등분석	
4	조정의 기술	의사소통	- 의사소통 필터 - 의사소통기술 - 비언어적 의사소통	
5		질문지 구성 및 합의문 작성	- 사전모임 및 본 조정 질문지 구성 - 합의문 작성	
6		조정계획 세우기	- 조정계획세우기 - 조정자가 하는 말 - 조정실습(1회)	
7	또래조정 실습		- 조정실습 - 활동일지 작성법 - 또래조정 운영과정 이해 - 문제 상황 시 의사소통 방법	

마음열기 및 기대나누기

감정 및 욕구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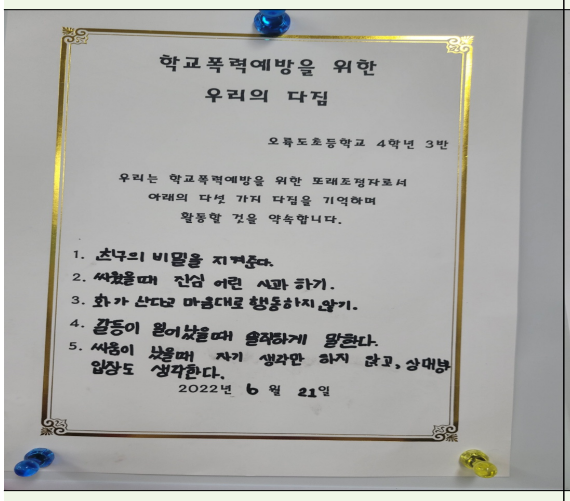
조정자 그림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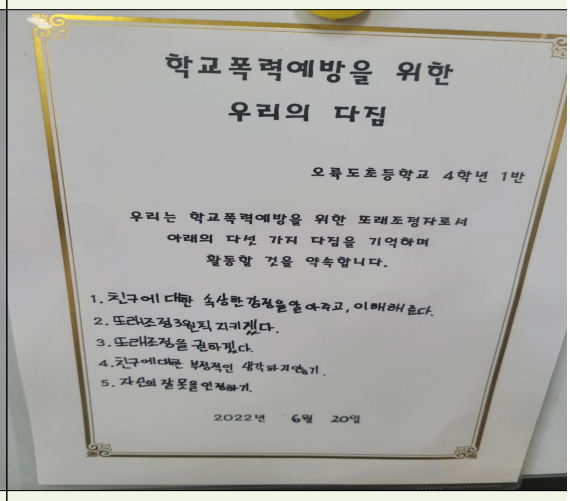
갈등상황 3자 개입 나누기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다짐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다짐Ⅱ

○ 발대식

· 대상 : 또래조정자 양성교육 이수 청소년
· 기간 : 6월부터(양성교육 종료 후)
· 내용 : 개회사, 축사, 수료증 및 임명장 수여, 선서문 낭독 등

개회사 및 축사

선서문 낭독Ⅰ

또래조정자 선서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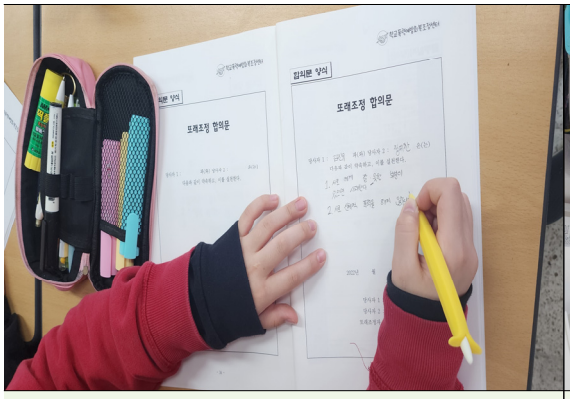
임명장 수여Ⅰ

임명장 수여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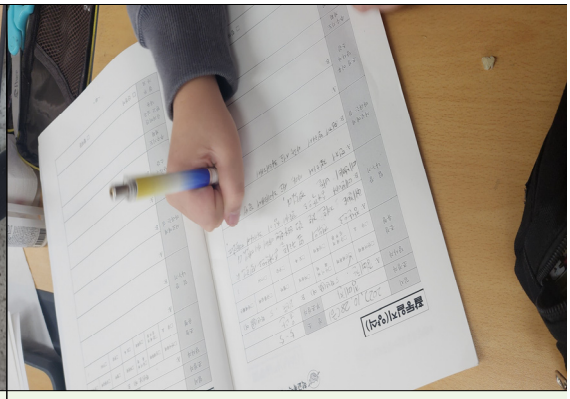
○ 추수지도 및 조정활동

· 대상 : 4, 5, 6학년 또래조정자 전원
· 시수 : 주 1회 / 2시간(총 7회기 / 14시간)
· 기간 : 조정활동 – 양성교육 종료 후 각 학급별 자체 진행
추수지도 – 월 1회 / 2시간(총 2회기 / 4시간)
· 내용 : 또래조정사례 슈퍼비전 및 갈등상황 시 개입방법, 사례 실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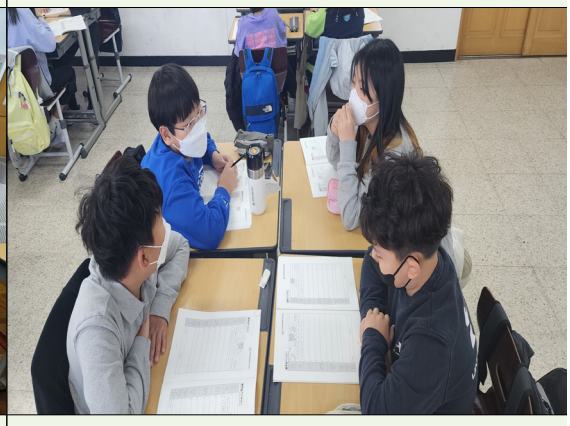
회 기	주제	세부내용	비 고
1	또래조정자로 활동하기	- 또래조정 퀴즈 및 사례실습 - 스마트수첩 안내 및 활용	
2	사례 슈퍼비전	- 또래조정 사례 슈퍼비전 - 갈등상황 시 개입방법 연습	



합의문 작성


활동일지 작성

조정실습Ⅰ


조정실습Ⅱ

또래조정 우수사례
"소통의 열쇠=또래조정"

<table>
<tr><td colspan="2">신청일자</td><td>2022. 10. 18</td><td>신 청 자</td><td>김OO</td></tr>
<tr><td colspan="2">조 정 자</td><td>정OO, 이OO</td><td>당 사 자</td><td>김OO, 서OO</td></tr>
<tr><td colspan="2">의뢰과정</td><td colspan="3">김OO과 서OO은 서로 오해로 인해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하여 김OO이 또래조정을 신청함.</td></tr>
<tr><td rowspan="2">사건개요</td><td>본조정</td><td colspan="3">- 조정자 소개 및 조정과정과 규칙에 대해 설명함.
- 당사자들 자신의 입장을 나눈 후 서로의 입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눔.
- 이번 상황에서 각자가 느꼈던 속상한 점에 대해 이야기함.
☞ 김OO : 서OO이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 기분 나빴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물건을 건드리는 것이 기분 나쁨.
☞ 서OO : 악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과도 장난으로 서로 물건을 만지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데 김OO이 자신에게만 화를 내니 서운하고 속상함.
- 각자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함.
☞ 김OO : 서OO에게 단호하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줬으면 좋겠음.
☞ 서OO :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를 내지 않고 말해줬으면 좋겠음.
-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오해했던 점을 사과한 후 앞으로 지킬 약속을 정함.</td></tr>
<tr><td colspan="2">조정결과</td><td colspan="3">- 상대방이 속상해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의 관계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
[합의문 내용]
1.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즉시 그 말과 행동을 멈춘다.
2. "~~해!"와 같이 명령하는 말보다 ~~해줄래?, ~~하면 어때? 등으로 바꿔 말한다.</td></tr>
<tr><td colspan="2">조정이후 상황</td><td colspan="3">2주 후 점심시간에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모임을 진행 한 결과 현재까지 잘 지켜지고 있음.
▸ 조정을 한 후 서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상황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아 관계가 편해짐.</td></tr>
<tr><td colspan="2">조정자 소감</td><td colspan="3">처음 해본 조정이라 떨리기도 했고 미숙했지만 당사자 친구들이 진지하게 임해주고 좋은 결과가 나와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모습을 봐서 뿌듯하다.</td></tr>
</table>

■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및 교사교육

○ 시범사업 교원 집중 이수제

· 대상 : 시범사업 선정 학교 전 교원
· 시기 : 2월
· 시수 : 6회기 / 12시간
· 내용 : 시범사업 신학기 집중연수

연 번	주 제	세 부 내 용	비 고
1	시범사업 안내	- 시범사업 및 회복적 학급운영매뉴얼 안내 -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2	교사서클	- 서클의 이해 및 활용 - 신뢰서클 및 문제해결서클 실습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운영 매뉴얼

· 배포시기 : 2022.02
· 배포대상 : 주양초등학교, 오륙도초등학교 전 교사
· 매뉴얼 구성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 개요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프로그램 소개
- 학교폭력 발생 전 지원 프로그램 안내
- 학교폭력 발생 단계 지원 프로그램 안내
- 학교폭력 발생 후 사후관리 안내

○ 회복적 실천특강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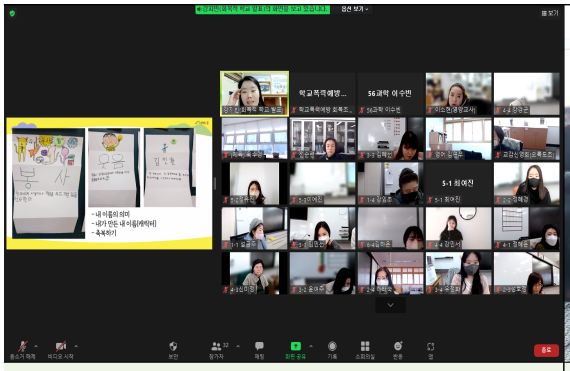
· 대상 : 4, 5, 6학년 학급 담임 교사
· 시기 : 5월
· 시수 : 2회기 / 4시간
· 내용 : 또래조정자 양성 및 운영방법

연 번	주 제	세 부 내 용	비 고
1	또래조정의 이해	- 또래조정의 개발 배경 및 목적 -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 또래조정 절차	
2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 조정자의 원칙 -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3	조정기술	- 양파분석 - 공감적 경청 - 가시빼기	
4	조정실습	- 사전모임 실습 - 본 조정 실습	

○ 회복적 실천특강Ⅱ

· 대상 : 시범사업 선정 학교 전 교원
· 시기 : 11월
· 시수 : 1회기 / 2시간
· 내용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NVC)

연 번	주 제	세 부 내 용	비 고
1	NVC(비폭력대화)소개	- 비폭력대화란? - 비폭력대화로 말할 때/들을 때 방법 -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단절의 대화) - 마음으로 소통하는 대화의 두 가지 측면과 모델	
2	비폭력대화로 표현하기	- 욕구를 일상어로 표현해보기 - 솔직한 자기표현 - 공감으로 말하기 - 공감을 방해하는 10가지 장애물	



회복적 학교 발표

신뢰서클

비폭력대화

또래조정 교사교육

○ **학부모 교육**

· 대상 : 시범사업 선정 학교 학부모
· 시기 : 3월, 11월
· 시수 : 1회기 / 2시간
· 내용 : 회복적 정의의 이해 및 가정에서의 회복적 실천방안

연 번	주 제	세 부 내 용	비 고
1	회복적 정의	-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 자녀와 관계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 회복적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안내	
2	가정에서의 회복적 실천방안	- 가족관계 및 갈등상황 이해 - 가정에서의 서클 활용	

■ 관계회복조정모임(집단)

○ 관계회복조정모임(집단)

· 대상 : 갈등을 겪고 있는 학급
· 시수 : 2회기 / 4시간
· 기간 : 6월
· 내용 : 공동체회복을 위한 우리학급 규칙 만들기

연 번	주 제	세 부 내 용	비 고
1	공동체 평화서클	- 몸풀기 놀이를 통한 규칙의 중요성 이해 - 환영의 서클로 초대하기 - 신뢰서클 진행 - 자발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과제제시	
2	우리 학급 규칙 만들기	- 문제해결서클 진행 · 입장나누기 및 마음열기 · 발생한 사건 이해 및 영향 확인 · 피해 회복에 대한 구성원들의 욕구파악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대안탐색 -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학급 동의 된 규칙 만들기	

공동체 평화서클 안내

입장나누기 및 마음열기

관계회복조정모임(집단) 합의문

신청기관	[illegible]	신 청 일	5 월 30 일
담 당 자	[illegible]	조 정 일	6 월 9 일
신청학급	학년 반 (남 11 명, 여 11 명 / 총 22 명)		

우리는 위 학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회복조정모임(집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1. 친구의 실수나 외모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는다.
2. 듣기 싫은 별명을 만들지 않고, 부르지 않기.
3. 친구가 말할때 끼어들지 않고 잘 들어주기.
4.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쓰지 않기.
5.

이 합의문의 약정내용은 20 22년 6 월 9 일까지 모두 이행한다.

20 22년 6 월 9 일

서명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강
[illegible]		김	전	임
[illegible]	정	류	권	윤
안	김	현	박	윤
김	이	정	최	유

학 교 폭 력 예 방 회 복 조 정 센 터

Ⅲ

성과 평가

1. 성과 평가 개요
2. 사업 내용 평가
3. 참여자 변화도
4. 참여자 학교생활의 질적 변화도

Ⅲ 성과 평가

1. 성과 평가 개요

■ 성과평가 연구 목적

○ 사업 결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업효과성 제시

○ 사업의 수행과정에 대한 자문을 통한 사업 보완점 및 개선사항 파악

○ 부산형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 확산 및 시스템 구축

■ 성과평가 연구진

이름	소속 및 지위	역할
아영아	신라대 상담심리복지학과	사업 성과평가 연구

■ 성과평가 추진 실적

내용	시기	세부내용
연구계획 수립	1월 ~ 2월	- 성과지표 및 연구일정 계획
교사 사전 설문조사	2월	- 2월 교원집중이수제 실시 전 - 3개 척도, 28개 문항 사전조사 실시
학생 사전 설문조사	3월	- 3월 학생 프로그램 실시 전 - 4개 척도, 32개 문항 사전조사 실시
사업자문 및 중간평가	7월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 자문위원 대상 중간평가회 실시
학생 대상 질적 인터뷰	10월	- 인터뷰 참여 동의한 학생 8명 질적 인터뷰 실시 (주양초 4명, 오륙도초 4명)
교사 대상 질적 인터뷰	10월	- 인터뷰 참여 동의한 교사 8명 질적 인터뷰 실시 (주양초 4명, 오륙도초 4명)
사후 설문조사	10월	- 성과지표에 따른 사후조사 실시
최종평가 및 연구보고	11월	- 사업 수행 성과 분석 - 연구보고서 발간

■ 성과평가 지표

○ 산출목표

목표	산출 실적	평가방법
회복적 학교운영 체계 구축	- 회복적 TF팀 구성 및 운영(교사·관리자 등) : 총 8회, 58명	- 운영실적 보고서
	- 학교폭력 시범사업 프로그램 사전교육 : 총 4회, 127명	- 교육확인서
	-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교과과정 포함 : 저학년 : 8시수, 고학년 26시수	- 사업결과보고서
	- 회복적 정의 인식 확산을 위한 학부모 교육 : 총 2회, 98명	- 교육확인서
민·관 공동 회복적 네트워크 구축	- 민 · 관 공동 자문위원회 운영 : 총 1회, 13명	- 자문회의 결과보고
	- 통합사례관리 실시(관계회복조정모임 집단) : 총 6회, 266명	- 개별 사례파일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위한 특강(교사) : 실천 특강Ⅰ(교사-또래조정) (총 4회, 56명) : 실천 특강Ⅱ (교사-비폭력대화) (총 2회, 38명)	- 교육확인서
	- 관계형성프로그램「우정Plus⁺프로그램」 : 총 21학급, 844명	- 교육확인서
	-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소탕작전」 : 기본과정(총 64학급, 1,930명) : 심화과정(총 23학급, 1,098명)	- 교육확인서
	- 또래조정자 양성교육 및 추수지도 : 또래조정자 양성교육(23학급, 3,480명) : 추수지도 및 조정(23학급, 1,662명)	- 교육확인서 - 또래조정 스마트수첩

○ 성과목표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대상	성과지표	성과도구	자료수집방법
폭력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조성	학생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 공동체의식 - 공감능력 - 갈등해결능력	- 학교폭력 인식 척도 - 공동체의식 척도 - 공감능력 척도 - 갈등해결력 척도	- 사전사후 설문지
		- 학교생활의 유의미한 변화	- 핵심참여자 인터뷰	- 인터뷰 질적조사
	교사	- 학급응집력 - 회복적 생활교육 인식도 -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	- 학급응집력 척도 - 생활교육 인식도 - 회복적 학급운영 정도	- 사전사후 설문지
		- 학급운영의 유의미한 변화	- 핵심참여자 인터뷰	- 인터뷰 질적조사

2. 사업 내용 평가 : 산출목표에 대한 내용 평가

■ 회복적 학교운영 체계 구축

○ 학교폭력전담기구 회복적 사안조사 실시운영

· 본 사업 운영 중 직접적인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사례회의가 실시되지 않았음. 시범사업 운영으로는 법률로 지정된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사안처리 절차 내 회복적 사안조사가 포함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 갈등 단계에서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회복적 TF팀 구성 및 운영(교사·관리자·학부모 등)

· 학교장,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회의를 실시하였음. 학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운영에 학부모 참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 운영 사전교육

· 시범사업 선정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및 회복적 학급운영매뉴얼을 안내하고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의 방향을 제시함.

·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의 요청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기 시작 전인 2월 내 사전교육이 이루어짐.

○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교과과정 포함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위해 저학년 8시수, 고학년 26시수를 교과과정 내 포함시켜 운영함. 특히 학급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학급별로 프로그램 실시 일정을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었음.

○ 회복적 정의 인식 확산을 위한 학부모 교육

· 가정에서의 회복적 인식확산과 변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은 학기당 1회씩 2회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1회만 실시됨.

· 대상자의 교육 참여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고 진행방법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시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관 공동 회복적 네트워크 구축

○ 민·관 공동 자문회의 운영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을 위해 2021년 8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업 계획 및 운영에 지속적인 자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자문위원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교사(교감), 학부모 등 청소년 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자문위원단의 활동이 시범사업 발전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 모니터링&사례회의, 통합사례관리

· 회복적 상담 및 학교폭력 사안 접수의 부재로 개별 사례회의 및 사후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았음. 학교폭력 사안처리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사안접수-서비스지원-사후관리의 실제 적용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학급이 발견되어 전문기관(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가 개입하여 관계회복조정모임(집단)을 실시하였고 이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지원으로 보임.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 회복적 학급 운영을 위한 실천 특강

·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또래조정사업은 학급 내 갈등발생 시 학생들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이에 또래조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소통 방법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비폭력대화 등 의사소통교육에 적절한 프로그램 구성과 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회복적 학급 운영

·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여부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교사의 회복적 학급 운영과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것으로 보임. 효과성 검증을 위해 보다 객관적 자료 수집이 필요함.

○ 관계형성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 많은 학생들이 학년과 반이 바뀌면 새로운 관계 형성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를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함. 신학기 증후군을 타파하고 학기 초 소통하며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또래 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절한 신뢰감 형성놀이 및 협동 활동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등 발생 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 책임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회복적 정의의 이해, 신뢰서클, 비폭력대화 등 학급 구성원의 자발적 책임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적절히 구성·운영한 것으로 보임.

○ 또래조정자 양성 및 운영

· 청소년들이 갈등상황에서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에 갈등분석, 회복적 의사소통기술, 조정사례연습 등 협력적 갈등해결을 위한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운영된 것으로 보임.

· 또래조정자 양성 이후 실제 갈등사례에 개입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도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3. 참여자 변화도 : 성과목표에 대한 양적평가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에 참여한 2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함. 자료수집 기간은 사전검사는 4월에 이루어졌으며, 사후검사는 10월 말에 이루어짐.

· 사전조사에 응답한 2개 학교 4·5·6학년 학생은 506명, 사후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모두 505명이며, 이중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모두 응답한 486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됨. 교사의 경우 사전에 47명, 사후에 52명이 응답하였으나 사전-사후 모두 응답한 43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됨.

· 조사대상자 학생의 특성을 보면, 전체 486명 중 남자는 240명(49.4%), 여자는 248명(50.6%)이고, 학년별로 보면 4학년은 155명(31.9%)이며, 5학년은 159명(32.7%), 6학년은 172명(35.4%)으로 나타남.

<표 1> 조사대상자(학생) 특성

구분		A초등학교	B초등학교	전체
성별	남	155명(51.2%)	85(46.4%)	240(49.4%)
	여	148명(48.8%)	98(53.6%)	248(50.6%)
학년	4학년	97명(32.0%)	58(32.2%)	155(31.9%)
	5학년	100명(33.0%)	59(32.2%)	159(32.7%)
	6학년	106명(35.0%)	66(36.1%)	172명(35.4%)
	전체	303명(100%)	183명(100%)	486명(100%)

· 교사의 특성을 보면 전체 43명 중 남자는 4명(9.3%), 여자는 39명(90.7%)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30대가 15명(34.9%), 40대 17명(39.5%), 50대 이상 11명(25.6%)로 나타남. 담임학년 응답자는 전체 40명이며, 이 중 1~3학년 담임은 20명(50%)이고, 4~6학년 담임은 20명(50%)로 나타남.

<표 2> 조사대상자(교사) 특성

구분		A초등학교	B초등학교	전체
성별	남	1명(3.8%)	3명(17.6%)	4명(9.3%)
	여	25명(96.2%)	14명(82.4%)	39명(90.7%)
연령	20~30대	8명(30.8%)	7명(41.2%)	15명(34.9%)
	40대	10명(38.5%)	7명(41.2%)	17명(39.5%)
	50대이상	8명(30.8%)	3명(17.6%)	11명(25.6%)
	전체	26명(100.0%)	17명(100.0%)	43명(100.0%)
담임학년	저학년(1~3학년)	11명(47.8%)	9명(52.9%)	20명(50.0%)
	고학년(4~6학년)	12명(52.2%)	8명(47.1%)	20명(50.0%)
	전체	23명(100.0%)	17명(100.0%)	40명(100.0%)

■ 측정도구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란 학교폭력에 대해 평소 인식하고 반응하는 행동 경향이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측정은 형사정책연구원(2004)에서 개발한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와 김언지(2019)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Rigby와 Slee의 The Provictim Scale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함. 전체 10문항으로 학교폭력 허용도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고 해석.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사전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는 .819이며, 사후는 .845로 나타남.

○ 공동체의식

· 공동체의식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 헌신과 책임을 인식하는 것임. 공동체의식 측정은 McMillan과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 검사지를 김은정 외(2015)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번안한 문항 중 6문항을 사용함.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해석.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사전 .691, 사후 .735로 나타남.

○ 갈등해결능력

· 갈등해결능력이란 두 사람 이상 관계에서 심리, 태도, 가치, 욕구, 이해관계 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립상태에 대해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갈등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최창욱 외(2004)가 타당화한 갈등해결능력 12문항을 사용함. 척도의 하위요인은 갈등이해능력, 자기이해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됨.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해결능력이 높다고 해석. 척도의 Cronbach'α계수는 사전 .816, 사후 .862로 나타남.

○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학급응집력

· 학급응집력이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애착으로 집단에 머물게 하는 역동적 힘과 구성원의 노력이라 할 수 있음. 측정은 Hovarth와 Greenberg(1989)가 만든 문항을 강순화(1994)가 재구성한 문항 중 11문항을 사용. 이 척도는 학급 분위기, 상호신뢰, 일체감, 의사소통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응답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학급의 응집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척도의 Cronbach'α계수는 사전 .918이며, 사후 .939로 나타남.

○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이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개념과 학생생활 및 학교폭력 상황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함.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측정은 경기도교육연구원(2017)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6문항을 사용함.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다고 해석. 척도의 Cronbach'α계수는 사전 .749이며, 사후 .717로 나타남.

○ 교사의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

· 교사의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이란 학급운영 및 학급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치와 실천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함. 교사의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2017)에서 사용한 교사의 회복적 문제해결방식 실천정도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도, 교사효능감 문항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10문항을 사용함.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1)'에서 '매우 중요하다(5)'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이 중요하다고 해석. 척도의 Cronbach'α계수는 사전 .859이며, 사후 .898로 나타남.

<표 3> 척도의 문항 수와 신뢰도

대상	변수	문항 수	Cronbach'α	
			사전	사후
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10	.819	.845
	공동체의식	6	.691	.735
	공감능력	4	.744	.790
	갈등해결능력	12	.816	.862
교사	학급응집력	11	.918	.939
	회복적 생활교육 인식	6	.749	.717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	10	.859	.898

■ 분석방법

· 자료는 SPSS(ver.22)를 활용하여 분석됨. 자료의 편집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교차분석을 실시함.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함. 구체적으로 성별, 학교급에 따른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교사대상 분석에서도 주요 변수의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연령과 담임 학교급에 따른 사전-사후 평균차이는 집단 사례수가 30명보다 적어 비모수 대응 2 표본 검증과 Willcoxon순위검증을 통해 평균차이를 검증함. 교사의 성별은 전체 43명 중 남자교사가 4명으로 범주화가 의미가 없어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는 검증하지 않았으며, 통계량에 대한 영가설 기각은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하여 유의성을 검증함.

■ 분석결과

○ 학생 대상 분석 결과

1) 전체 학생 사전-사후 평균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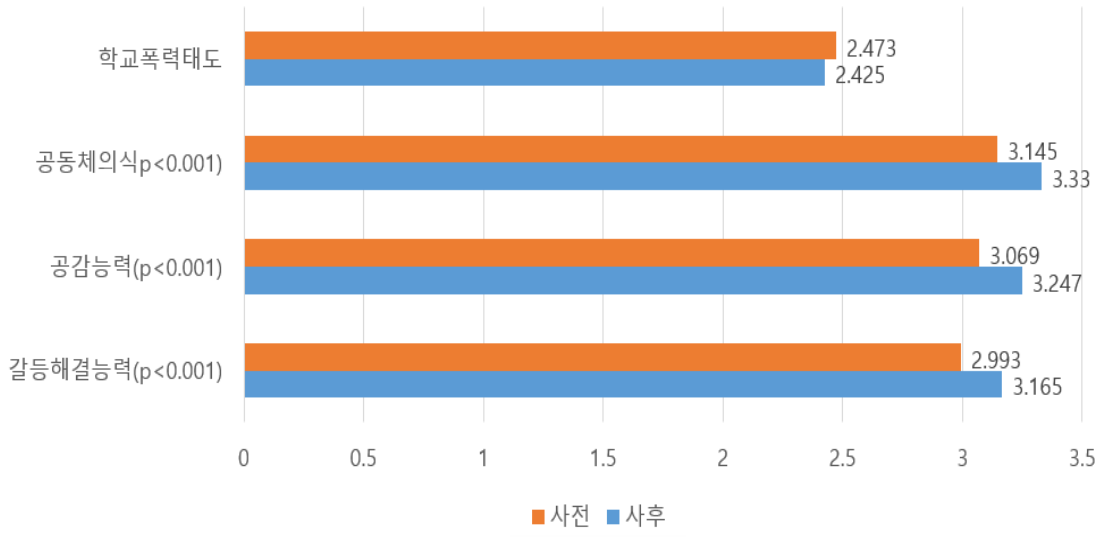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 486명의 사전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2.473(±.410)이며, 사후 평균은 2.425(±.426)로 .048점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사후에 .048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학교폭력 허용도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공동체의식의 사전 평균점수는 3.145(±.469)이며, 사후 평균은 3.330(±.481)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184점 높아졌으며, 이는 공동체의식이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t=-6.273, p<.001). 공감능력에서는 사전 평균이 3.069(±.545)에서 사후 3.247(±.531)로 .178만큼 유의미하게 상승한 효과를 보임(t=-5.148, p<.001). 갈등해결능력의 사전 평균점수는 2.993이며, 사후 평균은 3.165로 사전보다 사후에 .172점 유의하게 높아지는 효과를 보임(t=-6.219, p<.001). 이는 사전보다 사후에 갈등해결능력이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음을 의미함.

· **정리하면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는 모든 변수에서 사전보다 사후 평균점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공동체의식, 공감능력, 갈등해결능력에서는 사전보다 사후에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보여줌.**

<표 4> 학생 대상 주요변수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평균차이 표준편차	t	p
사전-학교폭력태도	486	2.473	.410	.048	.568	1.863	.063
사후-학교폭력태도	486	2.425	.426				
사전-공동체의식	486	3.145	.469	-.184	.649	-6.273***	.000
사후-공동체의식	486	3.330	.481				
사전-공감능력	486	3.069	.545	-.178	.764	-5.148***	.000
사후-공감능력	486	3.247	.531				
사전-갈등해결능력	486	2.993	.420	-.172	.610	-6.219***	.000
사후-갈등해결능력	486	3.165	.451				

****p<.001*



2) 성별에 따른 사전-사후 평균차이

(1) 남학생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 남학생 238명을 대상으로 주요변수의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 태도에서는 사전 평균이 2.561(±.453)이며, 사후평균은 2.446(±.442)로 사전에 비해 사후 학교폭력 허용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임(t=2.896, p<.01). 즉 남학생 집단에서는 시범사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교폭력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임. 공동체의식에서는 사전점수가 3.128(±.480)이고 사후 평균은 3.328(±.488)로 나타나 사전보다 사후에 공동체의식 평균이 .200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임(t=-4.611, p<.001). 공감능력에서도 사전(M=3.035)보다 사후(M=3.139) 평균이 .157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갈등해결능력에서도 사전(M=2.961)보다 사후(M=3.160) 평균이 .198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임.

· **정리하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5> 남학생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평균차이 표준편차	t	p
사전-학교폭력태도	238	2.561	.453	.114	.039	2.896**	.004
사후-학교폭력태도	238	2.446	.442				
사전-공동체의식	238	3.128	.480	-.200	.043	-4.611***	.000
사후-공동체의식	238	3.328	.488				
사전-공감능력	238	3.035	.582	-.157	.050	-3.096**	.002
사후-공감능력	238	3.193	.541				
사전-갈등해결능력	238	2.961	.441	-.198	.039	-5.035***	.000
사후-갈등해결능력	238	3.160	.439				

****p<.001, **p<.01*

(2) 여학생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 여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 태도에서 사전 평균점수는 2.388(±.344), 사후 평균점수는 2.406(±.412)로 사후에 학교폭력 허용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평균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공동체의식의 사전 평균은 3.164(±.460)이고 사후 평균은 3.331(±.477)로 사전보다 사후에 평균점수가 .166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t=-4.140, p<.001). 공감능력에서도 사전(M=3.331)보다 사후(M=3.302) 평균점수가 .200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200, p<.001), 갈등해결능력에서도 사전(M=3.206)보다 사후(M=3.173) 평균이 .146점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긍정적 변화를 보임t=-3.764, p<.001).

· **정리하면 여학생 집단의 경우 학교폭력 태도를 제외한 공동체의식, 공감능력, 갈등해결능력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6> 여학생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평균차이 표준편차	t	p
사전-학교폭력태도	246	2.388	.344	-.017	.519	-.518	.605
사후-학교폭력태도	246	2.406	.412				
사전-공동체의식	246	3.164	.460	-.166	.631	-4.140***	.000
사후-공동체의식	246	3.331	.477				
사전-공감능력	246	3.102	.507	-.200	.747	-4.200***	.000
사후-공감능력	246	3.302	.518				
사전-갈등해결능력	246	3.026	.398	-.146	.611	-3.764***	.000
사후-갈등해결능력	246	3.173	.462				

****p<.001*

3) 학교급에 따른 사전-사후 평균차이

(1) 4학년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 4학년 155명의 학교폭력태도 사전평균은 2.424(±.418)이며, 사후는 2.423(±.443)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 공동체의식의 사전 평균은 3.210(±.445)이며 사후 평균은 3.304(±.492)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093점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공감능력에서도 사전(M=3.138)보다 사후(M=3.185) 평균이 .046점 상승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갈등해결능력에서는 사전(M=2.946)보다 사후(M=3.146) 평균이 .199점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긍정적 변화를 보임t=-3.893, p<.001).

· **정리하면 4학년 집단의 변화는 모든 변수에서 긍정적이었으나 갈등해결능력에서만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 4학년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평균차이 표준편차	t	p
사전-학교폭력태도	155	2.424	.418	.000	.048	.015	.988
사후-학교폭력태도	155	2.423	.443				
사전-공동체의식	155	3.210	.445	-.093	.049	-1.877	.062
사후-공동체의식	155	3.304	.492				
사전-공감능력	155	3.138	.508	-.046	.058	-.799	.425
사후-공감능력	155	3.185	.557				
사전-갈등해결능력	155	2.946	.442	-.199	.051	-3.839***	.000
사후-갈등해결능력	155	3.146	.492				

****p<.001*

(2) 5학년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 5학년 159명의 주요변수의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태도에서는 사전(M=2.519)보다 사후(M=2.475) 평균이 .044점 낮아지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공동체의식의 사전 평균은 3.083(±.478)이며 사후 평균은 3.224(±.478)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140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임(=-2.714, p<.01). 공감능력의 사전 평균은 3.086(±.522)이며, 사후 평균은 3.185(±.513)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099점 상승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이러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갈등해결능력에서는 사전 평균이 2.993이고 사후 평균은 3.109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115점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임(t=-2.456, p<.05).

· **결과적으로 5학년 학생 집단은 모든 변수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공동체의식과 갈등해결능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음.**

<표 8> 5학년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평균차이 표준편차	t	p
사전-학교폭력태도	159	2.519	.413	.044	.579	.957	.340
사후-학교폭력태도	159	2.475	.429				
사전-공동체의식	159	3.083	.478	-.140	.652	-2.714**	.007
사후-공동체의식	159	3.224	.478				
사전-공감능력	159	3.086	.522	-.099	.777	-1.607	.110
사후-공감능력	159	3.185	.513				
사전-갈등해결능력	159	2.993	.381	-.115	.594	-2.456*	.015
사후-갈등해결능력	159	3.109	.431				

***p<.01, *p<.05*

(3) 6학년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 6학년 학생 172명의 주요변수 평균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태도는 사전 평균이 2.476, 사후 평균은 2.382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094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t=2.352, p<.05). 공동체의식에서는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308점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공감능력에서도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370점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긍정적 변화를 보임. 갈등해결능력에서도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199점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긍정적 변화를 보임.

· **결과적으로 6학년 학생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교폭력태도, 공동체의식, 공감능력, 갈등해결능력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됨.**

<표 9> 6학년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평균차이 표준편차	t	p
사전-학교폭력태도	172	2.476	.397	.094	.525	2.352*	.020
사후-학교폭력태도	172	2.382	.404				
사전-공동체의식	172	3.144	.477	-.308	.657	-6.150***	.000
사후-공동체의식	172	3.452	.449				
사전-공감능력	172	2.991	.589	-.370	.749	-6.486***	.000
사후-공감능력	172	3.361	.508				
사전-갈등해결능력	172	3.035	.432	-.199	.590	-4.435***	.000
사후-갈등해결능력	172	3.235	.422				

****p<.001, *p<.05*

○ 교사 대상 분석 결과

· 조사대상 교사의 수는 43명이며, 43명을 대상으로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함. 그러나 연령별, 담임 학교급별 집단을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검증하기에는 집단의 사례 수가 30명을 넘지 않아 비모수 대응 2 표본 검증을 통해 Willcoxon 순위검증으로 평균 차이를 검증함.

1) 전체 교사 사전-사후 평균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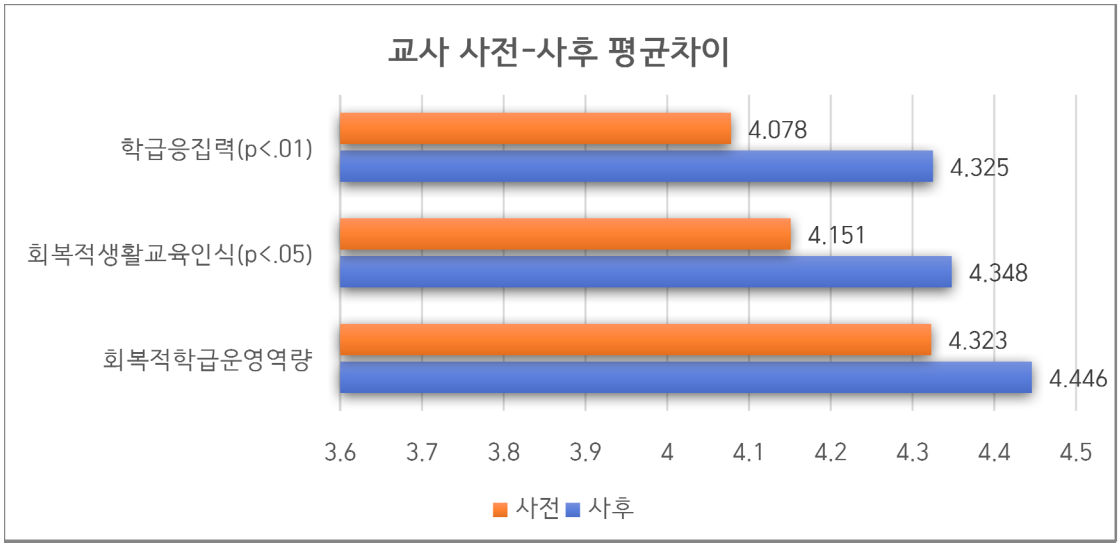
·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주요변수의 사전-사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급응집력에서는 사전 평균이 4.078(±.558)이고 사후 평균은 4.325(±.549)로 사전보다 사후평균이 .247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임(t=-2.956, p<.01). 이는 사전보다 사후에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학급응집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 인식에서는 사전 평균이 4.151(±.514)이며, 사후 평균이 4.348(±.403)으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197 유의하게 증가하여 긍정적 변화를 보임(t=-2.470, p<.05). 교사의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에서는 사전 평균이 4.323(±.430)이고 사후 평균이 4.446(±.421)으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123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는 아님.

· **정리하면 교사의 경우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급응집력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표 10> 교사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평균차이 표준편차	t	p
사전-학급응집력	43	4.078	.558	-.247	.548	-2.956**	.005
사후-학급응집력	43	4.325	.549				
사전-회복적생활교육인식	43	4.151	.514	-.197	.524	-2.470*	.018
사후-회복적생활교육인식	43	4.348	.403				
사전-회복적학급운영역량	43	4.323	.430	-.123	.451	-1.789	.081
사후-회복적학급운영역량	43	4.446	.421				

***p<.01, *p<.05*



2) 연령에 따른 사전-사후 평균 차이

· 교사의 연령을 '20~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주요변수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Willcoxon 순위 검증하였음.

(1) '20~30대' 교사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 '20~30대' 연령의 교사 15명 중 학급응집력에서 사전 평균은 3.921(±.604)이며, 사후 평균은 4.127(±.592)로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음. 구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증가한 사례는 7사례이고 4명은 사전점수가 높으며, 4명은 사전과 사후 점수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전 평균은 4.177(±.539), 사후 평균 역시 4.177(±.364)로 동일하게 나타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의 사전 평균은 4.260(±.442), 사후 평균 4.273(±.480)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 **정리하면 20~30대 교사 집단에서는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11> '20~30대' 연령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N	순위 평균순위	Z	p
사전-학급응집력	15	3.921	.604	4^a	4.50	-1.338	.181
				7^b	6.86		
사후-학급응집력	15	4.127	.592	4^c			
사전-회복적생활교육인식	15	4.177	.539	6^a	6.08	-.315	.753
				5^b	5.58		
사후-회복적생활교육인식	15	4.177	.364	4^c			
사전-회복적학급운영역량	15	4.260	.442	5^a	6.50	-.045	.964
				6^b	5.58		
사후-회복적학급운영역량	15	4.273	.480	4^c			

a:사전>사후, b:사후>사전, c:사전=사후

(2) '40대' 교사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 '40대' 연령집단 17명을 대상으로 대응 2표본 검증을 한 결과, 학급응집력의 사전 평균은 4.178(±.544), 사후 평균 4.508(±.451)로 사전에 비해 사후 평균이 증가하였으며, 사후 점수가 높은 사례수가 17명 중 14명으로 나타나 평균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Z=-2.182, p<.05). 회복적 생활교육 인식에서는 사전 평균이 4.127(±.563), 사후평균이 4.539(±.397)이며, 사후점수가 사전보다 높은 사례 수가 13명으로 나타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됨(Z=-2.628, p<.01).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에서는 사전 평균이 4.264(±.432), 사후 평균이 4.517(±.406)이며,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증가한 사례가 13사례로 나타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Z=-2.147, p<.05).

- **결과적으로 40대 연령 교사집단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인해 학급응집력과 회복적 생활교육 인식,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이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어 모든 연령 집단 중 가장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됨.**

<표 12> '40대' 연령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N	순위 평균순위	Z	p
사전-학급응집력	17	4.176	.544	3^a	10.17	-2.182*	.029
				14^b	8.75		
사후-학급응집력	17	4.508	.451	0^c			
사전-회복적생활교육인식	17	4.127	.563	4^a	5.38	-2.628**	.009
				13^b	10.12		
사후-회복적생활교육인식	17	4.539	.397	0^c			
사전-회복적학급운영역량	17	4.264	.432	3^a	6.17	-2.147*	.032
				11^b	7.86		
사후-회복적학급운영역량	17	4.517	.406	3^c			

***p<.01, *p<.05* a:사전>사후, b:사후>사전, c:사전=사후

(3) '50대 이상' 교사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 '50대 이상' 연령집단 교사 11명의 학급응집력 사전 평균은 4.140(±.513), 사후 평균은 4.314(±.578)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회복적 생활교육 인식에서도 사전 평균은 4.151(±.437), 사후 평균 4.287(±.365)로 사후가 사전 평균보다 높아진 사례가 8사례로 나타나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에서도 사전(M=4.500)보다 사후(M=4.572)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정리하면 '50대 이상' 교사집단의 학급응집력 인식, 회복적 생활교육인식, 회복적 학급운영역량은 사후에 점수가 더 상승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정도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표 13> 50대 이상 연령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Z	p
				N	평균순위		
사전-학급응집력	11	4.140	.513	3^a	6.33	-1.248	.212
				8^b	5.88		
사후-학급응집력	11	4.314	.578	0^c			
사전-회복적생활교육인식	11	4.151	.437	2^a	6.25	-1.543	.123
				8^b	5.31		
사후-회복적생활교육인식	11	4.287	.365	1^c			
사전-회복적학급운영역량	11	4.500	.397	4^a	3.88	-.831	.406
				5^b	5.90		
사후-회복적학급운영역량	11	4.572	.296	2^c			

a:사전>사후, b:사후>사전, c:사전=사후

3) 담임 학교급에 따른 사전-사후 평균 차이

· 담임으로 있는 학교급을 1~3학년은 '저학년', 4~6학년은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순위 검증함.

(1) '저학년' 담임교사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 '저학년' 담임교사의 학급응집력 사전 평균은 4.254(±.321), 사후 평균은 4.454(±.392)이며, 사후 점수가 상승한 사례가 20명 중 15명으로 나타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Z=-2.101, p<.05). 즉 시범사업 이후 학생들의 학급응집력이 높아졌다고 인식한 저학년 교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회복적 생활교육인식의 사전 평균은 4.108(±.453), 사후 평균은 4.300(±.352)이며, 사후점수가 사전보다 증가한 사례가 12명으로 나타나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님.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에서는 사전평균이 4.335(±.427), 사후 평균 4.390(±.430)으로 사후 평균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미를 보이지는 않음.

· **정리하면 '저학년' 담임교사들은 시범사업 이후 학급응집력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긍정적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나 회복적 생활교육인식과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14> '저학년' 담임교사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N	순위 평균순위	Z	p
사전-학급응집력	20	4.254	.321	4^a	10.75	-2.101*	.036
				15^b	9.80		
사후-학급응집력	20	4.454	.392	1^c			
사전-회복적생활교육인식	20	4.108	.453	5^a	8.40	-1.662	.096
				12^b	9.25		
사후-회복적생활교육인식	20	4.300	.352	3^c			
사전-회복적학급운영역량	20	4.335	.427	8^a	6.88	-.675	.500
				8^b	10.13		
사후-회복적학급운영역량	20	4.390	.430	4^c			

*p<.05 a:사전>사후, b:사후>사전, c:사전=사후

(2) '고학년' 담임교사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 '고학년' 담임교사 20명의 학급응집력 사전평균은 3.890(±.676), 사후 평균은 4.177(±.675)이며, 사후 점수가 사전보다 높아진 사례가 12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급응집력이 시범사업 이후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회복적 생활교육인식에서는 사전 평균 4.208(±.574), 사후 평균 4.391(±.446)이며, 사후점수가 사전보다 높아져 긍정적 변화를 보인 사례는 13명으로 나타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Z=-2.089, p<.05).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에서도 사전평균보다 사후평균이 긍정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13명으로 나타나 시범사업 이후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Z=-2.115, p<.05).

· **정리하면 '고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학급응집력, 회복적 교육인식,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졌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 인식 및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에서는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가졌음을 알 수 있음.**

<표 15> '고학년' 담임교사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N	순위 평균순위	Z	p
사전-학급응집력	20	3.890	.676	5^a	8.20	-1.683	.092
				12^b	9.33		
사후-학급응집력	20	4.177	.675	3^c			
사전-회복적생활교육인식	20	4.208	.574	5^a	7.60	-2.089*	.037
				13^b	10.23		
사후-회복적생활교육인식	20	4.391	.446	2^c			
사전-회복적학급운영역량	20	4.395	.412	4^a	8.00	-2.115*	.034
				13^b	9.31		
사후-회복적학급운영역량	20	4.590	.359	3^c			

*p<.05 a:사전>사후, b:사후>사전, c:사전=사후

4) 참여자 학교생활의 질적 변화도 : 성과목표에 대한 질적평가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심층면접 대상은 초등 4, 5학년 각각 2명씩 4명이며, 6학년은 각 2명씩 총 4명으로 전체 8명이 면접에 참여함. 교사는 초등 4·5·6학년 담임 각각 2명, 총 6명이며, 학교폭력담당 교사 2명으로 전체 8명이 면접에 참여함.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교사 중 2명은 서면으로 자료를 수집함. 심층면접은 2022년 10월에 면접자 4명이 참여함.
- 자료분석은 반복비교법을 통해 중요한 내용에 이름을 붙이고, 맥락이 유사한 것을 범주화시켜 원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음.

■ 심층면접 분석결과

○ 학생 대상 분석 결과

1)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면접참가 학생은 사업 이전에는 학교폭력을 신체폭력으로 한정하여 이해하였으나 사업 이후 학교폭력에는 언어폭력, 문자 협박, 성추행,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학교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 수 있음.

(1) 학교폭력 유형의 다양성

이제까지는 학교폭력이란 뭔가 때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말이랑, 친구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4학년 A)

학교폭력이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자로 협박을 하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5학년 A)

학교폭력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추행이랑 언어폭력 이런 것도.(b학년 B2)

1년 전에는 무조건 친구를 막 때리고 가격하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놀기도 했었는데...이번 이런 시간을 들어보니까 마냥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뭐 따돌림, 왕따같이...언어적으로나 사이버 공간 상에서도 언어폭력이 성립될 수 있고..학교폭력에 대한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4학년 B)

(2) 피해자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이해

TV를 보면 학교폭력이 큰 사건들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소하게 '바보야'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도 학교폭력의 일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b학년 B1)

폭력 당한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5학년 B)

2) 학급공동체의 의미

·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하는 학급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갈등도 해결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조율하면서 함께 놀고 활동하고 감정도 나누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라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1) 소속감

저는 한 번 걸리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무조건 같이 하게 되고, 점점 더 이해해야 되고, 그런 관계...(5학년 B)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같은 거를 배우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배워나가는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생각이 다른 친구들도 있는 공동체에서 그냥 같이 모여 있는 친구들 같아요.(b학년 B1)

(2) 갈등해결의 공동체적 책임의식

서로 힘들고 필요할 때마다 함께 뭔가를 헤쳐 나가면서 존중받는 것이 학급이라고 생각해요.(5학년 A)

같은 학급은 친구 간의 갈등을 우리 반에서 조정을 하여서 우리 반의 갈등을 좀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4학년 A)

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무리나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람들과 지내면서 소통도 해야 하고, 자기가 맞지 않는 부분도 같이 조율해 나가는 게 반이라고 생각합니다.(b학년 A2)

(3) 감정의 공유

재미있게 함께 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b학년 B2)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여러 활동을 하면 그게 반이 아닐까요?(b학년 A)

좋은 감정도 나누고 슬픈 감정도 나누고 다 같이 그런 감정을 나누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4학년 A)

(4) 상호성

한 친구가 만약에 다른 친구랑 싸웠을 때 예전에는 그 친구한테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반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한 번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5학년 B)

3) 갈등해결 능력의 향상

· 이번 사업을 통해 면접 참여자들은 갈등은 공동체 내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며, 사업을 통해 경험한 또래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됨.

(1)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보면 저희 진짜 매일매일 갈등이 있는데 사소한 갈등도 갈등이잖아요. 저희는 원래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되게 '갈등을 나쁘고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갈등은 되게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좀 편해지면서 남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가지고 사소한 갈등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b학년 A2)

(2)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친구랑 저랑 얘기를 하다가 약간 문제점이 생겨서 말싸움을 했는데 서로 지금은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날 쉬는 시간에 얘기를 나누고...이 부분에 나는 조금 너의 말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주고...둘 다 흥분 했을 때는 조금 가라앉히고 대화로 푸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5학년 A)

제가 겪은 건데 네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놀지 의논하다가 한 친구가 그 의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났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6학년 B2)

이전에는 다툼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는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면 옆에서 친구들이 속상했던 점을 들어주면 속상한 점 말하다가 저절로 풀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개입할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좋았어요.(6학년 B1)

(3) 또래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저희 반이 조금 산만한 편이라서 갈등도 자주 일어나고 그런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래조정에 대해 배우고 나니까 '또래가 또래 간의 갈등을 중재하여 해결해준다'는 개념이 생기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친구들도 알게 되니까 갈등에 대한 상황도 작아지는 것 같고 또 만약 갈등이 일어난다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5학년 B)

저는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또래조정을 해봤어요. 저번에 조정했을 때 욕구가 좀 파악이 안 되어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옆에 있는 공동조정자 덕분에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4학년 A)

저는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배우고 난 후에 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서 또래조정을 했는데 조금 새롭게... 화해를 하는 느낌이라서 직접 한다는 게,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6학년 B1)

또래조정이란게 이 수업 듣기 전에는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이거를 통해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또래조정으로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6학년 A2)

4) 회복적 학급분위기로의 변화

· 사업을 통해 면접참여자들은 학급의 회복적 분위기로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실제로 욕설과 비속어 등을 덜 사용하게 된 것을 경험하였으며, 따돌림이나 다툼, 갈등 상황, 신체접촉 등이 감소하였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감소한 것을 경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친구들 간 신뢰를 형성하고 협동하면서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진 것을 경험하고 있음.

(1) 비폭력 대화의 생활화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고...욕설은 조금만 줄어든 것 같고, 다툼은 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4학년 A)

저희 반은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끼리 노는 게 있어서 같이 놀면 부딪힐 때마다 폭력을 쓰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같이 놀면서 약간 서로 조금 감정이 안 좋으면 비폭력 대화를 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5학년 B)

처음에 한반이 되고 나서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조금 비속어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살짝 서로 조심하고 비속어를 썼다하더라도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하고.(b학년 B1)

저희가 그런 교육을 들을 때 저희 선생님도 뒤에서 참관하셨거든요. 그걸 듣고 선생님도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좀 b학년이다 보니 나쁜 말도 내뱉고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저희한테 선생님이 계속 고운 말을 강조하시는 것 때문에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고운 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b학년 A1)

(2) 학교폭력의 감소

사실 원래는 되게 갈등이 있으면 선생님이 많이 풀어주셨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한 친구를 은근히 따돌린다거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조율을 해나가고 자신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인지를 하면서 사소한 갈등을 쉽게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b학년 A2)

우리 반은 1학기 때에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딱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일어나니까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4학년 A)

이제는 이렇게 서로 신체접촉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b학년 B1)

저는 애들이 싫어하는 것을 금방 파악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해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b학년 B2)

(3) 신뢰와 협동의식 강화

서클 같은 걸 하면서 친구들이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게 되었고 뭔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만큼 협동심이 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5학년 A)

협동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또래조정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조금씩 관심이 생겨나서 이제 저희 반은 다 같이 협동을 잘 할 수 있는 반이 되었고.(b학년 B2)

서클 같은 걸 하면서 친구들이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게 되었고 뭔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만큼 협동심이 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5학년 A)

협동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또래조정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조금씩 관심이 생겨나서 이제 저희 반은 다 같이 협동을 잘 할 수 있는 반이 되었고.(6학년 B2)

4학년 초반에는 또래조정이라는 것도 아예 모르고 서로 잘 모르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뭔가 경계심이 높았는데 지금은 또래조정도 한 번 해보고 많은 얘기도 나눠봐서 이제 경계심이 살짝 풀려서 다 같이 어떤 거를 나누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4학년 B)

이 수업을 하면서 약간 친구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저희 반이 남학생, 여학생 따로따로 그게 조금 심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 같이 놀아도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된 것 같아서 저희 반의 변화가 많아서 좋아가지고.(5학년 A)

5) 지속적 시범사업의 필요성

· 면접 참여자들 대부분은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시범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또래조정 등을 배웠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이 많고, 알고는 있으나 실행이 잘 되지 않으며, 또래조정 수업 이후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음. 이전 대비 학교폭력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사업 프로그램이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어 아쉽다는 소감을 보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도 말하며 이후의 프로그램이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길 바라는 마음도 보임. 가령,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또래조정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시간이 부족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 모둠을 바꾸어 많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강사와의 친밀함에 대한 요구 등이 수정되어 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함.

(1) 아쉬움 및 성장에의 욕구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래조정 할 때 애들이 옆에 있는 친구랑 다투어서 잘 진행이 안됐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배우고 싶어요.(4학년 A)

저는 2주에 한번이라도 좀 오시면 좋겠어요.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돼요. 우리들이 또래조정 수업하고 있을 때는 뭔가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또 선생님이 안 오다 보니 또래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2주에 한 번이라도.(4학년 A)

이 수업을 듣고 애들이 알게 된 것은 많지만 실행을 잘 안하는 것 같아서.(6학년 B2)

(2) 추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

차근차근 고쳐나가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고쳐진 건 아니라서 조금 더 하는 게.(b학년 B1)

저희 반이 협동을 잘하는 반으로 좀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 좀 마이웨이 같은 친구가 있는데..그 친구도 뭔가 '이거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4학년 B)

(3) 긍정적 변화로의 욕구

너무 좋은 변화가 많아서 내년에도 지금만큼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5학년 A)

저는 처음 조정 실습 했을 때 살짝 들뜨는 마음도 있었고 조금 호기심도 있고 해서 그런지 진지하게 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b학년 B1)

1학기에 한 비폭력대화, 방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느낀 게 너무 많고... 저희들이 가게 될 중학교에도 와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b학년 A1)

또래조정은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갈등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폭력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b학년 A2)

(4) 보완사항

실습할 때 선생님이 주신 사례들이 아닌 우리 반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들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b학년 B1)

수업을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고 싶어요.(4학년 B)

저는 수업하는 거를 이론적인 부분도 좋지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5학년 B)

스마트 수첩을 기록하는 것이 한 교시 밖에 짧게 하지 못해서 스마트 수첩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4학년 B)

양파 분석 기법 같은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헷갈리는 부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5학년 B)

신뢰서클은 학생들이 이해시킨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 이제 선생님도 훨씬 편하고 학생들도 훨씬 이해를 할 수 있어서.(6학년 A2) 항상 같은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할 때마다 약간 바꿔서 다른 새로운 친구들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5학년 A)

<표 16> 학생의 심층면접 결과 분석

범주	하위범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 학교폭력 유형의 다양성 - 피해자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이해
학급공동체의 의미	- 소속감 - 갈등해결의 공동체적 책임의식 - 감정의 공유 - 상호성
갈등해결 능력의 향상	-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 또래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회복적 학급분위기로의 변화	- 비폭력 대화의 생활화 - 학교폭력의 감소 - 신뢰와 협동의식 강화
지속적 시범사업의 필요성	- 아쉬움 및 성장에 대한 욕구 - 추후 해결 되어야 할 과제 - 긍정적 변화로의 욕구 - 보완사항

○ 교사 대상 분석 결과

1) 학생 변화 가능성

· 교사들이 기대한 수준보다 시범사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직접 실천하는 역량에 놀라워함. 또한 교사들이 볼 때 실천기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지만 학생들은 잘 수용하여 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자신감 있게 다른 학생들에게 적용하였으며, 평소 집중력이 낮은 학생조차도 잘 참여하는 것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뿐만 아니라 신뢰서클과 또래조정, 비폭력 대화, 공감적 대화, 회복적 규칙정하기, 회복적 회의 등 다양한 회복적 기술을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학생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고함.

(1) 회복적 실천 능력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그 말투까지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하는데 하는 걸 보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대충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하면서 선생님 하시는 말 “양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까지 하면서 애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1학기 때 수업에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도 보다 보니까 분명 어려운 용어인데도 애들이 다 하고 또 실습할 때도 보면 그대로 막 흉내 내는 거 보면서 ‘나보다 낫다’ 선생님들끼리 ‘우리보다 낫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교사 1)

제가 이번에 이거 프로그램 경험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냥 ‘사과해’ 이게 아니라 들어주고 이게 된다는 거. 아이들이 교육만 되면 훨씬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저도 좀 놀랐고.(교사 1)

또래조정자는 또래조정자로서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잠깐만’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좀 요즘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교사보다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그게 되는 거예요. 좀 놀랐죠.(교사 1)

자기들이 인제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래조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한 거라서 이 또래조정은 별로 좋은 사례가 아니다.’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배우면서 서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자신감 있게 지도를 하더라고요.(교사 1)

저희반 애들도 뭔가 딴 짓 안 하고. 집중 안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후배 2학년 애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잘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교사 2)

(2) 자발적인 행동 변화

저희 학교에 짝학년 행사라고 있거든요. 이게 2학년, 5학년 선후배 활동인데 이번에 이 행사 처음 시작할 때 강당에 2학년, 5학년에 다 넣어놓고 한 다섯 명씩 서클로 해줘서 이야기를 나누게 했거든요. 근데 2학년 애들도 이제 선배들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5학년이 좀 주체가 돼서 진행하고 하니까 애들이 재밌게 잘 듣더라고요. 선배들이 저학년에게 실시하는 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교사 2)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는 일단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서로 갈등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서로 각자 서운한 입장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대화를 해서. 옛날에는 자기 잘못 끝까지 인정 안 했다면 이제는 '그게 네가 서운하구나 그렇다면 미안해' 하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 방법을 좀 찾으려고 애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교사 2)

'저희끼리 또래조정 좀 할게요.'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교사 3)

단톡방 안에서도 존댓말로 막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이 자꾸만 까먹고 반말을 막 쓰니까 '땡땡님 존댓말 쓰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교사 5)

욕설에 대해서 신고하기로 했는데 '비속어도 신고하면 좋겠다.' 제가 좀 반대했거든요. '비속어는 그냥 비호감으로 남겨두고, 신고는 나 안 받겠어.' 이렇게 하니까 비속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속어도 신고하겠다.'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규칙 다 정하고.(교사 5)

어느 반은 또 반장들끼리 모여서 반장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반장들 체면이 구겨지니까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반장들끼리 남아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회의를 잘 하더라고요.(교사 5)

2) 교사의 회복적 실천 역량 강화

· 교사들은 회복적 실천을 회복적 질문과 신뢰서클, 체크 인 & 아웃, 감정신호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소한 일상이나 관심사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게 되었으며,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학급운영의 팁을 가지게 되었고 학급운영의 방향성을 잡는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역량이 회복적 학급운영에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1) 학생들에 대한 이해

간단한 질문이지만 일상생활을 나누는 것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서클을 하면서 질문 정하는 게 어려워서 맨날 비슷한 것만 하다가 이번 2학기 때는 "어제 몇 시에 잤어?"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모든 생활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몇 시에 잤어?' 질문이 재밌으니까 그냥 쭉쭉 이야기하는데, 정말 밤을 꼴딱 새서 게임한 애도 있고. 그거에 모든 생활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교사 1)

초등 2학년이어서 처음에는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열기 놀이 하니까 일단 반응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 하고. '오늘의 감정이 어땠니?' 그거로 처음에 1학기 때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 들어주고, 나중에 소감 이런 걸 좀 써서 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다양성을 잘 알게 되었다고 제가 원하는 그런 답을 아이들이 다 잘 적었더라고요. 최근에는 고민 나누기 이런 걸로도 한 번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고민도 아이들이 하고 전부 다 '우리 약속이 있지. 다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신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드러내고. '해답을 누가 한 번 내줄래?' 하면 제가 또 토킹스틱 해가지고 돌려주고 하니까 애들 나름대로 자기들 수준에서 해답을 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반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좋은 인성교육의 한 아이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교사 7)

감정신호등도 칠판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을 안 하면 애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칠판에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자기들이 빨강, 초록, 노랑 알아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밑에 이렇게 붙이는 애들한테는 '오늘 왜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붙였어?'물어보면 다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맨날 공부 시간에 공부에 관련되는 거 질문하는데 이런 걸 시시콜콜하게 알게 되면서 저도 더 알게 되고 애들도 잘 알게 되어 좋은 것 같아요.(교사 7)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하고. '선생님 서클 언제 해요?' 이렇게 애들이 묻기도 하고...저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게 친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교사 7)

(2) 회복적 학급운영의 방향성 인지

솔직히 회복적 생활교육이 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뭔가 체계적으로 학급 운영을 하라던가 아니면 수업에 녹여내라든가 하면 솔직히 자신은 없었고, 대강 흐름은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학급에 적용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좀 반강제적으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해봤는데, 시도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애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엄청 많이 변해서 내년에도 이거를 꼭 학급 운영이나 수업에 좀 꼭 같이 해야겠다고 제 인식은 그렇게 변했습니다.(교사 2)

저희 반이 매주 금요일 6교시에 서클 시간을 그냥 따로 떼어 두고 하고 있는데, 서클을 할 때 동그랗게 앉아서 대화하기 전에 교실 놀이를 하거든요. 경쟁 필요 없고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교실 놀이를 하는데, 그때 개학 날 했던 거는 '방학 동안 가장 긍정적으로 변한 친구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1학기 우리 반이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이걸 여는 질문으로 하고, 주제 질문에는 저희 반 전학생이 와서 '전학생 오면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거 리스트 쫙 해서 애들 한 명씩 역할 분담하고, 마무리로는 '2학기 때 우리 반과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은?',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 정도로 해서 한 번 했었어요. 참여도가 엄청 높았고, 저도 이 대화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애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랑 애들 입에서 나오는 놀이랑 달라서 좀 2학기 학급 운영할 때 애들 입에서 나온 걸 좀 더 참고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교사 2)

(3) 회복적 학급운영의 실천 방법 습득

일단 수업에서부터 해당 수업에서 바라는 점이나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학생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그런 학생의 행동에서 교수자로서의 나는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알려 줍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교사 4)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처벌보다는 상을 주는 것으로 학급운영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급화폐를 받아서 모으고 받은 화폐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교사 b)

연수 때 많이 해봐서 나름의 열린 발문 하고, 중간에 있고 마무리 하는 그런 질문 3단계가 있으니까 조금은 단계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짜야겠구나는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연수 듣기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고.(교사 3)

3) 회복적 학급 공동체 형성

· 교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급에 스며들었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회복적 학급공동체로의 변화과정을 체감하고 있었음. 1학기부터 회복적 실천을 시작한 학급의 경우 학생들이 갈등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움을 적용한 것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교사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학생들이 회복적으로 해결해내는 경험을 목격하고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기도 함.

(1) 회복적 실천의 일상화

일단 애들이 또래조정이나 회복적 생활이나 이런 데에 좀 익숙해졌고요. 애들이 성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사실 자기들이 접하면서 좀 많이 스며들었구나 하는 생각들은 b학년 전반적인 선생님들 공통적인 생각이고.(교사 3)

2학기 때는 싸움이 일어나도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저 학생회실 좀 이용해도 돼요? 서클 좀 하려고요'하거든요. 그럼 가서 대화를 하고 빨리 해결되면 하루만에도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되면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2학기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터치를 안 해도 될 만큼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교사 2)

b학년 학생들도 수업 중에 문제 상황을 느끼면 남을 탓하는 말을 하다가도 흠칫 주저하는 모습을 모이곤 하더니 될 수 있으면 자신이 느끼는 바와 욕구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정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교사 4)

아이들끼리 알아서 옆에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뭐가 문젠데' 하기도 해주고. 수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또래조정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자기가 중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가 먼저 얘기해 봐, 그 다음에~'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습득이 된 것 같고.(교사 3)

(2) 공동체 문제해결의 주체성 강화

1학기 때부터 저희 반이 매주 서클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정착이 되었는지 학생들이 원래는 이런 거 정착되기 전에 학기 초에 뭐 싸웠다 하면 이제 저한테 와서 고자질 하듯이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뭔가 '선생님 잘잘못을 가려주세요'하면서 좀 싸우는 느낌이 강했다면, 2학기 때는 싸움이 일어나도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저 학생회실 좀 이용해도 돼요? 서클 좀 하려고요'하거든요. 그럼 가서 대화를 하고 빨리 해결되면 하루만에도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되면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2학기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터치를 안 해도 될 만큼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교사 2)

저희 반에 전학생 한 명이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우르르 가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해하는 폭이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걔네들 중에 서로 되게 모난 애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 제가 동학년 쌤들한테 가서 '회복적 서클하고, 또래조정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교사 3)

제가 회복적이라는 말이 진짜 이번에 실감 나는 게 우리 반 친구 중에 두 명이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 앉은 아이들은 '선생님 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쳐다보는 거 참 힘들어요.' 하면서 자기 자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몇 명이 자기가 거기 앉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고 해라는 말을 안 하고 책을 꺼내주더라고요. 꺼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걔가 안 하고 있으면 연필을 찾아서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이제 답이 뭐 쓰는 칸이 있으면 자기 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를 써라. 이런 식으로 아주 세심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담임이 일일이 해줄 수 없는 건데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그 두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교사 5)

한 친구는 막 책상서랍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옆에 앉은 여자친구가 '혹시 책상 정리하는 거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와서 '책상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줘도 되겠냐'는 거예요. '본인한테 꼭 허락을 받고 해라'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허락을 받았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본인한테 허락을 구하고, 저한테도 허락을 구하고.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왼쪽에는 책을 정리하고, 오른쪽에는 공책을 정리하고 포스트잇 적어가지고 딱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학교생활이 재미가 없고 애가 굉장히 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청 활기를 띠면서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고 말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런 게 회복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교사 5)

4) 학교 공동체의 변화

· 학교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질감 없이 학교전체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함. 혼자 혹은 학급단위로 하였다면 학교공동체의 회복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학교 단위의 사업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동질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음. 물론 교사 간 차이는 있으나 다수 학급과 교사들의 회복적 실천이 빈번해지면서 이제는 학교 공동체가 회복적 생활교육에 익숙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1) 회복적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이게 학교 차원에서 해놓으니까. 솔직히 만약에 저희 반만 들어왔다 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만 하면 좀 튀거나 왜 저런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년 다모임도 있거든요. 고학년 다모임 때 그냥 서클 하자 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편하게 할 수 있고.(교사 2)

학급이나 학년 차원의 시도였다면 어려웠을 것 같은 변화가 있다. 학교 전체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생각을 모든 주체가 인식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교사 6)

(2) 회복적 실천의 발판 마련

저희 학교는 이제 다모임을 진행하니까 그런 형식이 완벽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몇 년간 꼭 했었죠. 그걸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싫어해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갔던 것 같아요..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예요.(교사 1)

근데 확실히 저희 학교는 조금 더 서클 문화를 이제 좀 자리(잡고) 정착이 조금 되어가는 느낌은 들어요. 그걸 6학년 중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그걸 그냥 반의 화합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원으로 서클로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모든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이런 부분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교사 3)

5) 연속적 사업진행의 요구

· 심층면접에 참여한 교사들 중 5명의 교사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으나 학년 간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도 있었음.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결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학생이나 학급이 회복적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한 결과로 보임. 특히 몇몇 교사는 전문 강사의 세심한 교육과 지도가 학급분위기를 회복적으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함.

(1)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저희가 어제 작은 모임을 가졌었는데, 다른 반 아이들 생활교육을 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신규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교사 1)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진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교사 1)

근데 이번에 이제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좀 반강제적으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해봤는데, 시도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애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엄청 많이 변해서 내년에도 이거를 꼭...(교사 2)

b학년 학생들이 학기 초와는 달리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전달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유의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교사4)

4학년은 시범사업 만족도를 10점에 10점입니다. 다른 반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4학년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다들 '우리 반도 괜찮습니다.'하고 좋게 얘기했었어요.(교사 5)

학생들 간의 싸움 등 큰 문제는 담임교사가 해결하나 작은 갈등은 아이들이 서로의 감정 상태를 공유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 b)

(2) 전문 강사의 효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저희가 1학기 때 지속적으로 수업을 들어오셨을 때 일단 아이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매주 선생님 들어오시고, 피드백을 주시니까 굉장히 저희 반이 잘 되고 좋았거든요. 저도 보면서 그때 물어보고 '우리가 너무 좋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교사 1)

저는 제가 수업 참관을 계속했었는데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물론 또 선생님이 우리 반이 분위기 좋다고 해서 우리 반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했어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고 잘 따라하니까 저도 좋은 거죠.(교사 1)

담임교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 비폭력대화와 써클활동, 또래조정 등을 학생들에게 일일이 교육하면서 직접 운영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 학교폭력 예방교육까지 전문기관의 강사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교사 4)

우리 반에 들어왔던 그 선생님 참 수업 잘 하시고 좋으셨어요. 제가 모르는 세세한 지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자기들끼리 아침마다 이렇게 또래조정함을 열어보고, 그걸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교사 5)

6)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요구

· 사업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론중심에서 실제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함. 특히 또래조정의 경우 사후지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단순 체험학습으로 끝날 수 있음을 걱정하였으며, 또래조정의 경우 신청과 접수방법을 간소화하고 전체 내용도 단순화하여 학년, 학급 학생 수,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함. 무엇보다 교과 시수를 고려한 시간배정과 사업공모 신청 시기와 사업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교사들이 사업을 부담스러운 일로 여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함. 또한 강사의 수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래조정과 같이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년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저학년에게도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마지막으로 사업이 결국은 종료될 것이므로 이후 교사들의 역량이 준비되어야 이 사업의 지속과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교사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고함.

(1) 사업의 연속성

지금 프로그램이 많은데 일회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일회성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낯을 틀 시간도 필요한데, 그게 지속적으로 돼야지. 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뭐든지 안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교사 1)

또래조정자 사업이 지금 이제 처음 했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지 감은 잡은 것 같은데, 솔직히 자율적으로 하기 에는 좀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리가 있고. 계속 담임선생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매주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주시고 끝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교사 2)

이거 혹시 1년으로 끝나냐하니까 내년에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했어요. 수업이 꼭 매주 들어오지 않더라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생님이 오신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교사 1)

(2) 사례중심 강의

좀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 대신에 어쨌든 목적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주면 오히려 고학년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교사 3)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수업을 할 때 이론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애들한테 일어날 법한 상황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그 실전 연습을 해보는 걸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교사 3)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화가 났을 때 말하는 방법, 그런 좀 세세하게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기분이 이럴 수 있어'라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자꾸 애들한테 좀 많이 제시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방법 말고. 그런 애들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 주었을 때 '너 뭐라고 얘기할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교사 3)

어쨌든 애들이 이런 거를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이게 그냥 몸에 완전히 밸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교사 5)

또래조정을 신청하고 또 접수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학급경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6)

사실은 이제 진행하실 때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양식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잖아요. 그게 조금만 축소되는 형태로 초등에 맞게 들어오면 좀 낫겠다는 공통적 의견이었어요.(교사 7)

초등용으로. 굉장히 축소된 양식으로. 저희 반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식이나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꼈어요. 교육하실 때도 훨씬 단순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교사 7)

(3) 사후지도의 필요성

지금은 조금 약간 시들시들해진 이유가 수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피드백이 됐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여기서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정말 딱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러지 마, 이리 와 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이 돼야 되겠다, 교육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교사 1)

추수지도, 계속적인 지도, 그거 없으면 애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재밌게 그냥 체험 학습한 것처럼,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애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있을 때는 좋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애들 또래조정 안 한다하고. (강사)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교육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교사 1)

또래조정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 영향력이 있는 아이와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은 그건 좀 연습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교사 3)

(4) 학년에 따른 단계적 개입

또래조정 활동의 경우 4학년 때 전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5, 6학년 때는 또래조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학생회 활동과 연계하여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교사 4)

제가 생각했을 때 5, 6학년은 또래조정의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 4학년부터 배워나가는 이 학년들이 5학년 때 또 하고 6학년 때 또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4학년은 정말 흡수를 잘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 때 한 번 하고, 5학년 올라갔을 때 4, 5학년을 같이 하고 또 얘들이 6학년 올라갔을 때 4, 5, 6학년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교사 5)

예방을 위해서 포커스를 차라리 두려면 저학년 때부터 이거를 많이 해야 그런 분위기가 돼서 차차 올라가야 되는데, 4학년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 5, 6학년은 머리가 이미 굳을 대로 굳은 아이들이라서 좀 이 사업의 효과가 적지 않나. 좀 안타깝습니다.(교사 8)

저학년은 시수가 너무 작았어요. 저희 애들도 하면 좋았을 건데. 충분히 좋아하고 잘하더라고요. 마음열기놀이도 좀 많이 해보고. 우리 반 애들은 서클하자고 하면 벌써 우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두루 뭉실하게 학교폭력예방교육, 우정플러스 이렇게 말고. 저학년 또래조정 1, 2, 3학년까지, 4학년은 또래조정 확실하게. 5, 6학년은 또 5, 6학년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또 요구를 하시면 비폭력 언어 위주로 한다든지...(교사 8)

(5)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

6학년이지만 진짜 아기거든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아기한테 대하듯이 좀 어르고 달래면서, 4시간 수업이면 한 2시간쯤 양을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정해진 과정의 프로그램 끝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았어요. 아예 그걸 줄여버리고 굉장히 여유있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교사 7)

초등은 인원도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학군지, 인원, 교사 특성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거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고, 우리 애들과 제가 거의 다 맞춰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프로그램은 그 학교 특성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애들을 쪼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내기 위해서 사실 6학년은 좀 힘들었어요.(교사 7)

우리 학교만의 특히 인성 쪽에 특수하게 더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고, 선택사업처럼 이렇게 딱 체크를 해가지고 원하는 교육을 센터에서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언어폭력, 비폭력대화 쪽으로 해서 또 다른 외부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도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교사 8)

(6) 사업신청 시기 및 내용의 적절성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센터, 학교, 교육청이 3위 일체 의논을 한 번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교사 8)

교사연수시기, 커리큘럼하고 이런 게 다 사전 협의가 너무 안 되지 않았나. 시범학교를 2월 방학 중에 공문이 왔었거든요. 제 생각에 훨씬 더 일찍 공문에 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동할 때, 보통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말은 시범학교인데 다 모르고 계시고. 연구학교라고 하면 사실 엄청 찾아서 이렇게 다들 하시려고 하시거든요.(교사 8)

(7) 강사 평준화

강사선생님들의 수준이 일정해야 합니다. 강사 선생님 간의 능력 차가 너무 커서 그 효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강사선생님이 직접 초등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학급 경영을 해본 분, 회복적 생활교육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교사 6)

(8) 교사 업무부담 감소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저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초등은. 저희는 진짜 많이 해서 굳이 더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하는 일은 없었지만, 어차피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더 부가적으로 들어온 거라서. 사실은 시간 빼는 것도 그렇고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교사 7)

좋은 말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고 나쁜 말로는 잔소리죠. 잔소리고 애들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얘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이게 완전 일상생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교육 들어오고, 인터뷰도 하고, 피피티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좀 부담은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신청하면 '안 할 것 같다.'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이게 싫은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좀 부담됐었어요.(교사 7)

사실 좀 시간이 길고,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많이 내주는 불편함이 있었어요.(교사 5)

시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약에 4학년은 이걸 좀 그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약간 시수를 줄여서.(교사 5)

교사연수시기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2월 말에는 정말 바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거를 교감선생님도 '이거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긴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교사 8)

사례 발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교사 8)

(9) 교사 지원 시스템

강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게 1년, 2년 계속 들어오실 수 없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실은 이렇게 지도가 되고 후속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저는 미숙한 거 같아요. 이게 강사 선생님이 얘들 지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사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교사 1)

결국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주최는 담임교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교사 연수를 더 많이 하고 학교폭력 수업은 담임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그 어려움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교사 6)

<표 17> 교사의 심층면접 결과 분석

범주	하위범주
학생 변화 가능성	- 회복적 실천 능력 - 자발적인 행동 변화
교사의 회복적 실천 역량 강화	- 학생들에 대한 이해 - 회복적 학급운영의 방향성 인지 - 회복적 학급운영의 실천방법 습득
회복적 학급 공동체 형성	- 회복적 실천의 일상화 - 공동체 문제해결의 주체성 강화
학교 공동체의 변화	- 회복적 학교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 회복적 실천의 발판 마련
연속적 사업진행의 요구	-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 전문 강사의 효과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요구	- 사업의 연속성 - 사례중심 강의 - 사후지도의 필요성 - 학년에 따른 단계적 개입 -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 - 사업 신청 시기 및 내용의 적절성 - 강사 평준화 - 교사 업무부담 감소 - 교사 지원 시스템

Ⅳ

사업의 의의 및 제언

1. 사업의 의의
2. 제언

Ⅳ 사업의 의의 및 제언

1. 사업의 의의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회복적 TF팀 (학년별 교사 대표, 학교폭력 담당 교사, 전문기관 실무자) 구성을 통해 이들의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화를 통해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음. 다만 학교폭력 사안 컨설팅이나 개별 사례회의 등은 실시되지 않아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민·관 공동 회복적 네트워크 구축(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계, 청소년 유관기관 전문가)을 통해 자문을 비롯한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였으며, 모니터링과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회복적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또한 학교와 센터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프로그램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등 사업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결과로 사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사업의 단위를 학교로 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서 학교단위의 회복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가 되었음. 학생 단위나 학급 단위로 사업이 운영되었다면 자칫 회복적 실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고립되고 유별난 사업이 될 수 있었지만, 학교 단위의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학생회의, 교사회의, 갈등 상황에서의 회복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업의 수월성을 높여주었으며, 학교공동체의 회복적 생활교육의 문화형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임.

○ 시범사업 2교의 모든 학년에게 프로그램이 투입되어 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조성 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됨. 저학년(1, 2, 3학년)에는 존중과 공감, 관계기술 향상을 위한 우정 Plus+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이해와 회복적 의사소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소통작전 기본이 투입되고, 고학년(4, 5, 6학년) 대상으로 학교폭력 소탕작전 기본과 신뢰서클과 문제해결서클을 다룬 학교폭력 소탕작전 심화,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회복적 실천 역량이 강화되어 회복적 학교공동체를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함.

○ 교사대상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회복적 학급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 질적·양적평가에서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과 회복적 학급운영 역량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 그러나 교사의 연령별, 저학년과 고학년 담임교사에 따라서는 편차가 나타났으며, 질적 평가에서도 심층면접 참가 교사 8명 중 2명은 시범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여 사업 개선점 및 보완할 필요성을 보여줌.

○ 사업 수행 결과 학년별 단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확보함. 시범사업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일괄적인 프로그램이 투입되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이 동시에 나타남. 학교단위의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 동의하지만 학년별 개입은 학년 특성과 학교의 여러 상황적 조건을 통해 조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저학년에도 또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5, 6학년도 또래조정을 실시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만 4학년 활동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학교별 요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회복적 실천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 교사의 질적 평가를 보면 학생들의 회복적 실천역량에 놀라움을 많이 표현함. 회복적 대화를 하려는 노력과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기도 하며, 또래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교사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학생들이 회복적으

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학생들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다려 주면 충분히 회복적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됨. 그러나 사후관리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체험한 경험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범사업의 확산은 교육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오늘날 학생이 당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가족구조 기능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임. 사회화 기술의 부족은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함. 질적 평가에서 학생들은 학급공동체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으며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됨. 학교는 교육의 기회와 함께 사회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의 확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사업의 확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사와 학생 대상 양적 및 질적 평가를 보면 사업을 통한 하위목표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질적 평가에서도 사업의 지속성을 원하는 요구가 높았으며, 일회성 체험학습이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사후관리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요구가 높았음. 비록 양적평가 연구 설계가 통제집단을 두지 못해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과성에 아쉬움이 있으나 질적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점을 다소 보완하고 있음. 향후 사업의 개선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 제언

○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

· 평가결과 학생과 교사의 사업에 대한 지속성 요구가 높았음. 뿐만 아니라 양적 평가에서도 학생과 교사 모두 전반적인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음.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통해 학생, 교사, 학급, 학교의 변화가 가시화된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그러나 사후지도의 필요성, 연차별 변화된 개입, 학년별 단계적 개입을 위한 고민과 함께 사업공모시기의 적절성, 사업공모 시 학교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견에는 이론중심이 아니라 실제사례를 가지고 세세한 영역에서의 실천방법으로 재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았음. 학생들의 실천역량이 높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용어가 어렵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서 실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향후 사업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세세한 팁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또래조정의 경우에서도 절차의 복잡성을 간소화하여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또래조정자를 학급에서 선정할 때 사안과 친구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또래조정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범사업 기간 확대 및 학년별 단계적 개입

· 현재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되어 수행됨.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학년별 발달특성과 학년별 과업에 맞는 단계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나치게 많은 연간 수업시수로 인하여 일정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현재의 1년짜리 사업운영으로는 그 한계가 있고 2~3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입할 필요가 있음.

· 학년별 단계적 개입의 제안으로는 저학년의 경우, 우정Plus+프로그램 사업과 신뢰서클을 투입하고, 고학년의 경우 4학년과 5학년은 현재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투입하면서 사후관리를 학년이 종결될 때까지 연결하는 방안, 6학년은 또래조정단을 중심으로 지속적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방안임.

○ 전문 강사 역량강화

· 전문 강사는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력이라 할 수 있음. 평가결과 강사에 대한 의견을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남. 강사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이 배가되었다는 의견과 강사로 인한 사업의 부정성을 토로한 경우임. 전자는 교사가 또래조정 등 회복적 프로그램에 대한 세세한 피드백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 강사의 관심과 피드백이 학생변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며, 후자는 강사로 인해 학생들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프로그램 수행이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됨. 실제로 면담 교사 2명은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근저에 강사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전문 강사의 역량을 높이는 과제를 안게 됨. 제안으로는 전문 강사의 학습동아리를 정기적으로 가져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는 장이 필요함. 더불어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나 회복적 생활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전문 강사의 인력풀이 확충되어야 하므로 센터에서는 전문가 양성과정을 심화시키고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례분석이나 신전을 높이는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교사지원을 위한 노력

· 교사들 대부분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역량강화가 개인의 노력에 의존되어 있음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큰다고 판단됨. 그러나 교사의 역량 개발이 없으면 사업의 효과성을 유지 및 사업 확산이 어렵다는 점에서 교사의 회복적 실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실천 위주의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하고, 이후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을 위해 전문기관의 보조 및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임.

· 시범사업 운영 학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학교 내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할 전담교사를 학년별로 두어 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사업을 학교 내에서 다른 교사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전담 교사에 대해서는 심화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사업 확대가 본격화되면 전담교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전수하는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음. 이는 학교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교사로부터의 이질감을 없애고 사업에 동참하는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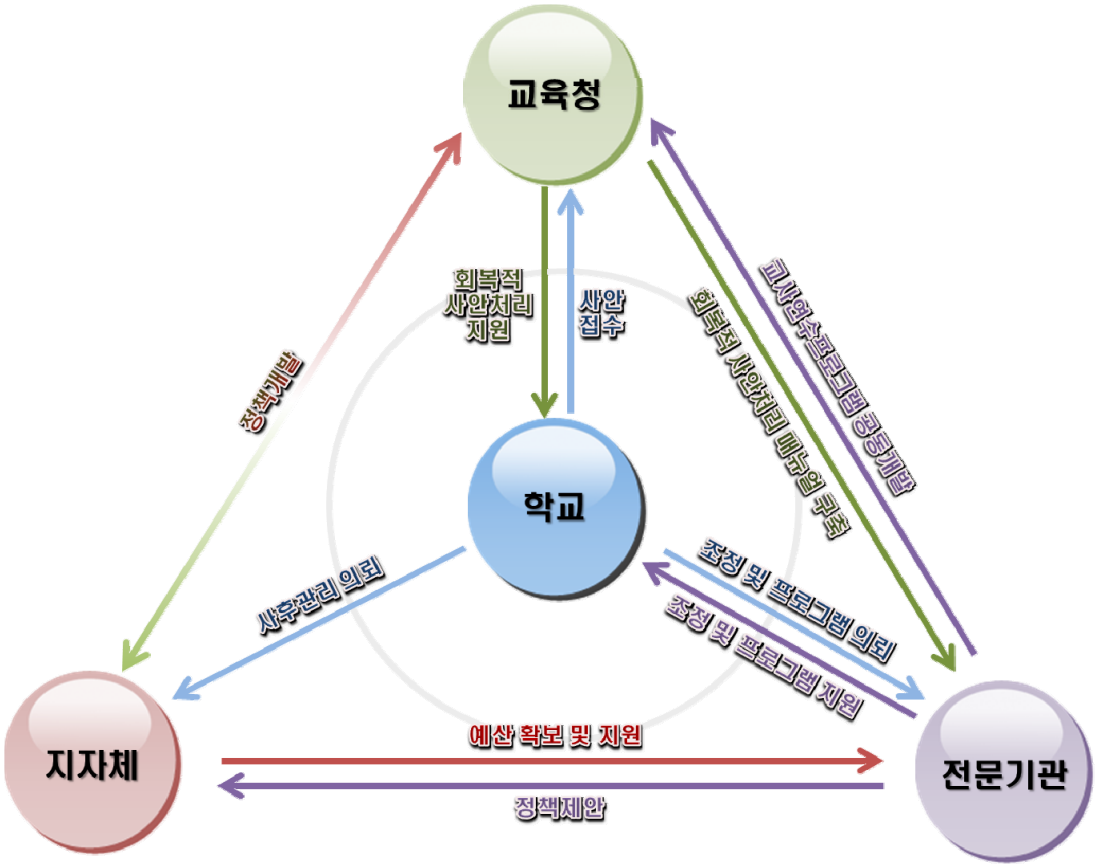
○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 및 장기적 계획 수립

· 최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안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시에 갈등 차원의 문제로 인하여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 사이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음(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안처리 매뉴얼 내 해당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적 접근의 필요성은 확인하였으나 특정 몇몇의 학교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산시 전체의 학교폭력 zero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이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사안처리-사후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제언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 구분 및 모델을 제시함.

○ 특화모델



주체	역할
단위학교	- 학교폭력 발견 및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유무, 관계회복프로그램 필요 유무 등) - 학급 내 갈등사항 모니터링 및 지원 요청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육청	- 부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정책 개발 - 회복적 초기상담 및 사례 발굴 - 관계회복프로그램 연계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사 연수 개발
지자체	- 부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정책 개발 -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연계
전문기관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및 관계회복조정모임(개인, 집단) 지원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사 연수 개발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지원 및 전문 인력 관리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예방교육, 또래조정프로그램 등) 운영

부산형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성과연구보고서

2022년 12월 인 쇄
2022년 12월 발 행

발행인 장 은 선
발행처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위탁운영 :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Tel. 051) 303-9676 Fax. 051) 303-9608

인쇄처 거북인쇄공사 051) 804-3327

※ 본 책자는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으며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부산형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성과연구보고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